

정책연구 2017-29

대전지역 성평등정책 현안 및 수요분석

An Analysis of Gender Equality Policy Needs in Daejeon

주 혜 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오윤희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정책연구 2017-29

대전지역 성평등정책 현안 및 수요분석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목적

- 대전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여건, 그리고 시민의 평가와 요구에 근거하여 민선 7기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본 연구는 현 성평등 상황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미래 전망,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구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수요를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거주지역, 생활양식 등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해 파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전문가 및 여성 세대별 의제 발굴 집담회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 ~ 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1,593명의 응답자 (남성 808명, 여성 785명) 대상 분석
- 인구통계를 비롯하여 행정 통계 등 문헌자료 분석

■ 연구결과

□ 성평등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

- 여성 발전의 패러다임에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성 주류화 제도의 확산을 가져옴
-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수는 줄고,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 대전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전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인 53.0%(2017년 8월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노령화 지수는 2012년 50%대에서 2016년에는 78.8%까지 상승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다소 높은 현황임
-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성의 인권 및 안전 현황을 나타내는 폭력 피해 여성 비율은 늘어나 안전이 여전히 성평등 지수 도출의 취약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 성평등 현황에 대한 시민 평가와 전망, 정책 수요

-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성차별적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고, 채용이나 임용, 승진 등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경험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이나 성비하, 외모비교 등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적 경험은 2,30대 젊은 여성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
- 남성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주로 노동과 경제문제-고용, 소득, 노후 대비와 관련한 것인데 비해, 여성은 고용이라는 공통의 어려움 외에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자기계발 시간 부족’ ‘가족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임금노동과 일상생활 사이에서의 갈등 관련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20대 여성은 ‘고용불안정성과 취업문제’, 30대 여성은 ‘가족돌봄문제’, 50대 여성은 ‘건강과 노후대비’ 문제를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식함
-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사업들 중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 받은 사업은 ‘패밀리 데이’ 등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한 ‘직장문화 개선제도’였으며, ‘성평등 인식 교육’도 효과가 좋다는 평을 두 번째로 많이 받음
- ‘가족 여가활동 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직업교육’이나 ‘교양교육’ 등 시민 교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로 대전시민은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여성 응답자의 특성을 집단별로 산출해낸 군집분석 결과와 이를 통한 세대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는 다음과 같음

여성 군집 유형과 특성

(단위 : %)

	고학력 정규직 30~40대 직장맘	일하는 중산층 40~50 기혼 여성	노후가 불안한 50~60대 기혼 여성	정규직 20~30대 비혼 여성	일하고 싶은 20대 비혼 여성
크기	28.8 (N:226)	23.3 (N:183)	19.5 (N:153)	14.3 (N:112)	14.1 (N:111)
자녀수	2명 (63.3)	2명 (57.9)	2명 (58.2)	없음 (95.5)	없음 (98.2)
혼인상태	기혼 (96.9)	기혼 (85.8)	기혼 (88.9)	혼인한적 없음 (86.6)	혼인한적 없음 (86.5)
연령대	40대 (41.6)	50대 (35.0)	50대 (39.2)	20대 (55.4)	20대 (67.6)
가구유형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80.1)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55.2)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50.3)	부모와 동거 (55.2)	부모와 동거 (47.7)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있음 (86.3)	없음 (92.3)	있음 (96.7)	있음 (88.4)	없음 (88.3)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있음 (70.4)	없음 (97.8)	있음 (93.5)	있음 (91.1)	없음 (98.2)
사회차별 경험여부	있음 (88.9)	없음 (84.7)	있음 (99.3)	있음 (96.4)	없음 (81.1)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있음 (81.9)	없음 (80.9)	있음 (95.4)	있음 (90.2)	없음 (98.2)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가족돌봄문제 (28.3)	신체건강문제 (17.5)	고용불안정성 /취업문제 (26.8)	고용불안정성 /취업문제 (24.1)	고용불안정성 /취업문제 (33.3)
최종학력	4년제 대졸 (54.4)	고졸 (41.0)	고졸 (38.6)	4년제 대졸 (53.6)	고졸 (45.0)
경제활동상태	정규상근 (73.9)	정규상근 (38.3)	비정규상근 (32.0)	정규상근 (59.8)	정규상근 (45.0)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일-가정양립 지원 (53.1)	일-가정양립 지원 (18.0)	일-가정양립 지원 (23.5)	일-가정양립 지원 (21.4)	일-가정양립 지원 (26.1)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29.2)	300만원대 (21.9)	300만원대 (21.6)	200만원대 (32.1)	200만원대 (30.6)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직장문화 개선제도 (32.7)	직장문화 개선제도 (20.2)	성평등인식교 육 (41.2)	직장문화 개선제도 (33.0)	직장문화 개선제도 (24.3)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가족여가 활동시설 (27.0)	가족여가 활동시설 (28.4)	직업교육 /취업상담기관 (23.5)	가족여가 활동시설 (16.1)	교양교육기관 (21.6)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61.5)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41.5)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28.1)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37.5)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44.1)
생활권	노은 (12.4)	온천 (10.9)	가오효동 (10.5)	진잠관저 (9.8)	괴정용문 (10.8)

여성 세대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

성평등 정책 목표		성평등 정책 대상과 주요 사업	
20대	여성 고용 활성화와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 CEPTED 확산과 도시환경 개선 관련 여성 의견 수렴(모니터링) 강화 - 위급상황 대처 방안 강화(비상벨, 비상전화 등)
		비취업 (대학생)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혜 확대 - 커리어 개발 상담 - 지역 기업 인턴제 활성화
		취업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 직장문화개선(저녁이 있는 삶, 육아휴직과 돌봄휴가 사용 권장 및 확산) 캠페인과 인센티브 확대 - 가족상담과 교육(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프로그램 강화와 확산
30대	일과 가정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산, 보육 품질 관리 - 직장문화개선 캠페인,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의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창업교육 내실화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과 교육(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프로그램 강화와 확산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 상담과 동아리 활동, 진로 교육 지원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활성화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50대	여성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과 양성평등 교육(평등한 부부 교육,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프로그램 강화와 확산 - 양질의 일자리 알선 및 고용 지속을 위한 훈련과 교육 -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창업상담 활성화 - 지역 기업 인턴제 활성화 - 정책제안 및 결정과정(위원회, 정책 모니터링)에의 참여 - 노후대비 경제 교육 	
60대	건강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 돌봄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동네 탐방 등) - 찾아가는 건강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예방접종, 위험질환 검사 등) - 구직정보와 직업훈련 기회 창출 - 노인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보급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방법과 절차	4
1) 시민설문조사	4
2) 문헌연구	12
3) 전문가·세대별 의제 발굴 집담회	12
4) 연구절차	14
2장 성평등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	17
1.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과 성 주류화 제도	17
1) ‘여성 발전’패러다임에서 ‘성 주류화’로	17
2) 성 주류화 제도의 확산	18
2.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2017년 시행계획	20
3. 대전지역 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25
1)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	25
2)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27
3) 복지	29
4) 대표성과 정치참여	31
5) 안전	33
3장 성평등정책 수요조사 분석	39
1. 성(불)평등한 생활	39
1) 차별의 경험	39
2) (불)평등한 시간과 어려움	49
2. 성평등 평가와 전망	61
1) 성평등 현황 평가	61
2) 성평등 전망	62

3.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와 수요	69
1) 성평등 정책의 효과	69
2)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74
3) 성평등 정책 목표와 필요한 전략	78
4.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	88
1) 군집분석	88
2) 군집의 유형과 특성	96
4장 대전시 성평등 정책 수요 전망	117
1. 성평등 정책 수요조사 결과의 의미	117
2. 여성 세대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	124
참고문헌	128
부 록	
부록 1. 부록표	129
부록 2. 설문지	134

표 차례

[표 1-1] 설문문의 주요 내용	5
[표 1-2]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모집단 분포 및 목표표본 구성안	7
[표 1-3] 조사개요	8
[표 1-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지 특성	9
[표 1-5] 전문가·세대별 의제 발굴 집담회 개요	13
[표 2-2] 2016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주요 추진 실적	21
[표 2-3] 2017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주요 추진 내용	24
[표 2-4] 인구 성비	26
[표 2-5] 노령화 지수	26
[표 2-6] 가족형태별 가구 분포	27
[표 2-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8
[표 2-8] 산업별 종사자 성비	28
[표 2-9] 경력단절여성 현황	29
[표 2-10] 노령연금수급자 현황	29
[표 2-1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30
[표 2-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30
[표 2-13] 광역 및 기초 의회의원 현황	31
[표 2-14] 직급별 여성 공무원 현황	31
[표 2-15] 대전광역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32
[표 2-16]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33
[표 2-17]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36
[표 3-1]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 비교	39
[표 3-2]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 비교	40
[표 3-3] 여성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에서 성차별 경험 여부 - 연령별 비교	41
[표 3-4] 여성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 비교	42
[표 3-5]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비교	43
[표 3-6]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비교	43

[표 3-7]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비교	44
[표 3-8]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비교	45
[표 3-9] 여성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경험 여부 - 연령별비교	46
[표 3-10]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비교	47
[표 3-11]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비교	47
[표 3-12] 여성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비교	48
[표 3-13]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남녀비교	50
[표 3-14] 여성의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연령별비교	51
[표 3-15]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연령별 남녀비교	53
[표 3-16]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 남녀비교	56
[표 3-17]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2순위) - 남녀비교	57
[표 3-18] 여성이 생각하는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 연령별비교 ..	59
[표 3-19] 여성이 생각하는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2순위) - 연령별비교 ..	60
[표 3-20] 전반적인 대전시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 - 남녀비교	61
[표 3-21]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62
[표 3-22] 여성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63
[표 3-23]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64
[표 3-24] 여성이 생각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65
[표 3-25]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66
[표 3-26] 여성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67
[표 3-27]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68
[표 3-28] 여성의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68
[표 3-29]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1순위) - 남녀비교	70
[표 3-30] 여성이 생각하는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1순위) - 연령별비교	72
[표 3-31] 여성이 생각하는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2순위) - 연령별비교	73
[표 3-32]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 남녀비교	75
[표 3-33]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 연령별비교	77
[표 3-34]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 남녀비교	79
[표 3-35]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 연령별비교	80
[표 3-36]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 자치구별비교	81
[표 3-37]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1순위) - 남녀비교	83
[표 3-38]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2순위) - 남녀비교	84

[표 3-39]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1순위) - 연령별비교	86
[표 3-40]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2순위) - 연령별비교	87
[표 3-41]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 도출을 위한 군집분석 내용	89
[표 3-42]	군집분석에 사용된 성평등 현황 및 정책수요 변수	90
[표 3-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군집분석	93
[표 3-44]	군집분석을 위한 중생활권 설정	95
[표 3-45]	군집의 유형화	97
[표 3-46]	군집#4: 고학력 직장맘의 특성(N=226)	100
[표 3-47]	군집#2: 일하는 중산층 40~50대 여성의 특성(N=183)	103
[표 3-48]	군집#5: 노후불안 중장년 여성의 특성(N=153)	105
[표 3-49]	군집#3: 정규직 20~30대 비혼 여성의 특성(N=112)	108
[표 3-50]	군집#1: 일하고 싶은 20대 비혼 여성의 특성(N=111)	111
[표 4-1]	「2017 양성평등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 평가와 정책 수요 전망	120
[표 4-2]	여성 세대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	125
[부표 1-1]	여성이 생각하는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비교	129
[부표 1-2]	여성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비교	129
[부표 1-3]	여성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에서 성차별 경험 여부 - 연령별비교	130
[부표 1-4]	여성의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자치구별	130
[부표 1-5]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자치구별 남녀비교	131
[부표 1-6]	여성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대전시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 - 연령별비교	132
[부표 1-7]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2순위) - 남녀비교	133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단계와 주요내용	14
[그림 2-1]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23
[그림 2-2] 대전시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34
[그림 2-3] 대전시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34
[그림 2-4] 대전시 지역 성평등 지수 분야별 현황	35
[그림 3-1] 군집 품질	96
[그림 3-2] 군집 크기	96
[그림 3-3]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와 주요 특징	113

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과 절차

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 2015년 7월 「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행해 왔던 ‘여성정책’은 ‘성평등정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과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2017년 5월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돌봄권 보장 정책 등을 제시했음
- 대전시도 민선7기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여성정책 현황을 돌아보고, 관련하여 현재 대전시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해, 새 정부의 성평등정책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에 주목하고자 함. 첫째, “성평등정책의 ‘새로움’이 기존 여성정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마경희·김경희·박수범·이술, 2016: 3),” 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기존 여성정책과의 연계 지점에 대한 논의
- 둘째, 현 성평등 상황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미래 전망,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구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수요를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거주지역, 생활양식 등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해 파악
- 셋째, 시민의 평가와 요구 그리고 미래 정책 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민선7기 성평등정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제 발굴
-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의 요구하는 지역 성평등정책 방향과 사업 내용 파악을 근거로 민선7기 대전광역시 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사업 도출과 성평등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 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방법과 절차

1) 시민설문조사

(1) 조사 목적과 개요

① 조사 목적

- 본 연구는 시민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대전지역 성평등 현황,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 ~ 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 학교, 직장 및 기타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적 경험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성평등 정책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함
- 행정동 및 자치구별 정책현안 및 수요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정책 수요 현황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여 시각화함
- 정책수요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에 따라 민선7기 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고, 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함

② 조사 개요

- 본 설문은 여성가족부가 2016년 12월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제시된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체계’와 1,2차에 걸쳐 수행된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역 성평등 수준 파악을 위한 지표 체계’에 근거함
- 또한 본 설문은 생활시간, 성평등 여건,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와 수요 이외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 ([표 1-1] 참조)

[표 1-1] 설문지의 주요 내용

구분		관련 설문 항목
성평등 지수 산출을 위한 분야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월평균 가구소득 ■ 1일 평균 노동시간
	의사결정/ 여성의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대전을 위한 실천 목표
	교육과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 여가 시간
	보건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거주지 선택 사유 ■ 현 거주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수와 첫째 자녀 연령 ■ 가사와 돌봄 시간 ■ 여성가족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요
	문화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전반적인 대전시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

③ 조사 대상

- 본 조사는 2017년 4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과 연령, 기초자치구와 행정동에 분포하는 모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여 목표표본 구성안을 설계함
-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비율과 표본의 구성 비율을 할당요인에 따라 표본을 선정함
- 성, 연령, 자치구(행정동)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할당요인은 일반 성인의 성별, 연령별, 행정동별 규모로 선정함
-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정의하였고,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69세의 5개 연령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생성하였으며, 행정동은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인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내 79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나누어 생성함

- 앞서 정의한 할당요인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근거로 하여 파악한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로 모집단을 구성하고 분포에 따라 표본을 설정함
- 전체 분석대상 모집단 수는 1,082,183명이며, 이중 남성은 50.5% (546,649명), 여성은 49.5%(535,534명)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4.2% (261,533명)로 가장 많고 50대 22.2%(240,157명), 30대 20.4%(220,690명), 20대 19.7%(213,590명), 60대 13.5%(146,213명) 순임
- 본 조사의 목표 표본수는 1,500명이며, 시민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1,738부를 회수하고,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1,593부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1-2]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 모집단 분포 및 목표표본 구성안

(단위: 명)

자치구별	항목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구	표집	인구	표집	인구	표집	인구	표집	인구	표집	인구	표집
대전광역시	합계	1,082,183	1,515	213,590	299	220,690	309	261,533	366	240,157	336	146,213	205
	남성	546,649	765	113,071	158	112,086	157	130,243	182	119,676	168	71,573	100
	여성	535,534	750	100,519	141	108,604	152	131,290	184	120,481	169	74,640	104
동구	합계	166,309	233	30,902	43	31,845	45	37,373	52	38,284	54	27,905	39
	남성	85,987	120	16,787	24	16,740	23	19,711	28	19,245	27	13,504	19
	여성	80,322	112	14,115	20	15,105	21	17,662	25	19,039	27	14,401	20
중구	합계	178,202	249	32,332	45	33,195	46	42,142	59	40,707	57	29,826	42
	남성	89,627	125	16,956	24	16,736	23	21,444	30	20,332	28	14,159	20
	여성	88,575	124	15,376	22	16,459	23	20,698	29	20,375	29	15,667	22
서구	합계	354,118	496	73,960	104	72,223	101	86,088	121	77,552	109	44,295	62
	남성	175,006	245	38,063	53	35,988	50	41,316	58	37,857	53	21,782	30
	여성	179,112	251	35,897	50	36,235	51	44,772	63	39,695	56	22,513	32
유성구	합계	244,880	343	49,657	70	58,838	82	62,297	87	49,757	70	24,331	34
	남성	124,494	174	26,674	37	29,730	42	30,738	43	25,028	35	12,324	17
	여성	120,386	169	22,983	32	29,108	41	31,559	44	24,729	35	12,007	17
대덕구	합계	138,674	194	26,739	37	24,589	34	33,633	47	33,857	47	19,856	28
	남성	71,535	100	14,591	20	12,892	18	17,034	24	17,214	24	9,804	14
	여성	67,139	94	12,148	17	11,697	16	16,599	23	16,643	23	10,052	14

자료: 행정자치부(2017.04),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is.kr>)'에서 성별, 연령별, 자치구별로 주민등록인구를 산출함.

④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1,000명 이상의 대단위 조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뢰성 있는 외부 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함
- 본 조사는 2017년 6월 중 전문조사업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1 대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코딩화,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됨
- 본 조사의 조사개요는 [표 1-3]과 같음

[표 1-3]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대전시 5개 자치구 거주민(만 20~69세 성인남녀)
표본 수	1,500명 내외
표집 방법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7년4월)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자치구(행정동)별 분포비율 적용
조사 방법	사전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조사 기간	2017년 6월 (총30일)

⑤ 응답자 특성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59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4]와 같음

[표 1-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거주지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593	100.0	808	100.0	785	100.0
성별	남성	808	50.7				
	여성	785	49.3				
연령대	20대	300	18.8	159	19.7	141	18.0
	30대	344	21.6	171	21.2	173	22.0
	40대	412	25.9	204	25.2	208	26.5
	50대	345	21.7	176	21.8	169	21.5
	60대	192	12.1	98	12.1	94	12.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이하	17	1.1	5	.6	12	1.5
	중학교 졸업	26	1.6	6	.7	20	2.5
	고등학교 졸업	448	28.1	217	26.9	231	29.4
	전문대학 졸업	214	13.4	93	11.5	121	15.4
	4년제 대학교 졸업	686	43.1	369	45.7	317	40.4
	대학원 졸업 이상	202	12.7	118	14.6	84	10.7
혼인 상태	기혼	1067	67.0	529	65.5	538	68.5
	사별/이혼/별거	82	5.1	30	3.7	52	6.6
	혼인한적 없음	444	27.9	249	30.8	195	24.8
가구 (거주) 유형	혼자 거주	268	16.8	159	19.7	109	13.9
	배우자와 동거	316	19.8	166	20.5	150	19.1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698	43.8	339	42.0	359	45.7
	자녀와 동거	50	3.1	13	1.6	37	4.7
	손자녀와 동거	2	.1	-	-	2	.3
	부모와 동거	241	15.1	123	15.2	118	15.0
	기타	18	1.1	8	1.0	10	1.3
자녀수	없음	533	33.5	297	36.8	236	30.1
	1명	266	16.7	137	17.0	129	16.4
	2명	653	41.0	311	38.5	342	43.6
	3명	115	7.2	49	6.1	66	8.4
	4명	22	1.4	12	1.5	10	1.3
	5명 이상	4	.3	2	.2	2	.3
경제 활동 상태	정규상근	839	52.7	461	57.1	378	48.2
	비정규상근	190	11.9	72	8.9	118	15.0
	파트타임/일용직	115	7.2	50	6.2	65	8.3
	자영업	140	8.8	94	11.6	46	5.9
	일하지 않음	309	19.4	131	16.2	178	22.7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	빈도	%	빈도	%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0	6.3	48	5.9	52	6.6
	100만원~200만원 미만	101	6.3	44	5.4	57	7.3
	200~300만원 미만	277	17.4	123	15.2	154	19.6
	300~400만원 미만	315	19.8	173	21.4	142	18.1
	400~500만원 미만	261	16.4	148	18.3	113	14.4
	500~600만원 미만	294	18.5	161	19.9	133	16.9
	600만원 이상	245	15.4	111	13.7	134	17.1
거주 지역	동구	221	13.9	105	13.0	116	14.8
	중구	280	17.6	143	17.7	137	17.5
	서구	528	33.1	263	32.5	265	33.8
	유성구	378	23.7	198	24.5	180	22.9
	대덕구	186	11.7	99	12.3	87	11.1
현 거주지 선택 사유	직장(학교)과 가까워서	565	35.5	305	37.7	260	33.1
	주거비(집값)	214	13.4	117	14.5	97	12.4
	교통	138	8.7	69	8.5	69	8.8
	안전(치안)	23	1.4	8	1.0	15	1.9
	교육/보육환경	191	12.0	100	12.4	91	11.6
	여가/문화시설	37	2.3	21	2.6	16	2.0
	공원/녹지	55	3.5	23	2.8	32	4.1
	깨끗한 환경	128	8.0	61	7.5	67	8.5
	의료시설	11	.7	6	.7	5	.6
	복지시설	17	1.1	13	1.6	4	.5
	주차여건	12	.8	4	.5	8	1.0
	쇼핑/편의시설	21	1.3	8	1.0	13	1.7
	지인들이 가까이 살아서	110	6.9	48	5.9	62	7.9
	기타	71	4.5	25	3.1	46	5.9
현 거주지 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	주거비(집값)	372	23.4	198	24.5	174	22.2
	교통	178	11.2	90	11.1	88	11.2
	안전(치안)	72	4.5	33	4.1	39	5.0
	교육/보육환경	102	6.4	57	7.1	45	5.7
	여가/문화시설	296	18.6	152	18.8	144	18.3
	공원/녹지	86	5.4	45	5.6	41	5.2
	환경오염	76	4.8	23	2.8	53	6.8
	의료시설	42	2.6	17	2.1	25	3.2
	복지시설	65	4.1	37	4.6	28	3.6
	주차여건	190	11.9	96	11.9	94	12.0
	쇼핑/편의시설	78	4.9	41	5.1	37	4.7
기타	36	2.3	19	2.4	17	2.2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42.6	12.924	42.5	13.133	42.8	12.713
자녀수(명)	1.91	.690	1.89	.704	1.93	.676
자녀수(명)	1.27	1.063	1.19	1.069	1.35	1.052
첫째자녀연령	19.60	10.868	19.09	10.616	20.06	11.086
거주기간(년)	25.79	17.295	26.59	17.776	24.97	16.757

- 여성의 비율이 49.3%로 남성보다 적으며, 전체 평균연령은 42.6세이고 남성평균연령은 42.5세, 여성평균연령은 42.8세이며, 연령대는 40대가 남성 25.2%, 여성 26.5%로 가장 많았음
- 최종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45.7%, 여성은 40.4%였음
- 혼인상태는 기혼 67.0%, 혼인한적 없음 27.9%순이었고 남성은 기혼 65.5%, 여성은 기혼 68.5%였으며, 가구(거주)유형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가 남성 42.0%, 여성 45.7%로 가장 많았음
- 자녀수는 평균 1.27명이며 응답 비율로는 2명이 41.0%로 가장 많았고, 첫째자녀연령은 평균 19.60세로 남성은 평균 19.09세, 여성은 20.06세였음
- 경제활동상태는 정규상근 비율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57.1%, 여성은 48.2%로 남성의 정규상근 비율이 더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사이가 19.8%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300~400만원 사이가 21.4%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00~200만원 사이가 19.6%로 많았음
- 거주지역은 서구가 33.1%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23.7%, 중구 17.6%, 동구 13.9%, 대덕구 11.7%순이었으며, 평균거주기간은 25.79년으로 남성은 26.59년, 여성은 24.97년이었음
- 현거주지 선택사유로는 직장(학교)과 가까워서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비 13.4%, 교육/보육환경 12.0%순이었으며, 남성 여성 모두 직장(학교)과 가까워서가 많았음

- 현거주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거비가 2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가/문화시설 18.6%, 주차여건 11.9%순이었으며, 남성 여성 모두 주거비가 24.5%, 22.2%로 많았음

2) 문헌연구

-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사업의 현황 관련한 문헌을 검토함. 성평등정책 추진의 근거인 정책 패러다임과 조례 등을 검토함
- 성평등정책 추진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인구통계를 비롯하여 행정통계, 여성가족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에 근거한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함

3) 전문가·세대별 의제 발굴 집담회

- 성평등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연구방법 및 조사지 개발을 위해 타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집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구설계 및 조사지 개발에 반영함
-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성평등교육강사 등으로 구성된 ‘세대별 의제 발굴 집담회’를 개최함
- 20대에서 60대까지 여성들이 모여 현재 각 세대별 여성이 처한 상황과 문제,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 의제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발굴하여 그 결과를 설문조사지 구성에 반영함

[표 1-5] 전문가·세대별 의제 발굴 집담회 개요

구분	참여자에 따른 구분	
	전문가 집담회 논의 내용	세대별 집담회 논의 내용
개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4월
참석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여성정책연구기관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 6인(30대 2인) •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
시민설문조사 진행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 모두 응답; 남녀 응답 차이 비교 • 차별 경험 등 현 성평등 체감 정도 파악 • 삶에 대한 혹은 성평등한 삶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체계에 따른 설문 문항·젠더 이슈 제안		
성평등한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대는 일자리의 안정성, 40대는 노후대비 불안감 • 경력단절 후 역량강화의 기회 부족
여성의 인권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대 남성과의 관계 형성에서 오는 불평등감(데이트 폭력 등) • 60대의 건강문제, 자녀세대의 경력단절 • 공적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역량 부족
성평등한 의식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성평등 상황에 대한 전망과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0대 남편과의 소통문제 대두 • 세대 공통, 혼인 전 성평등한 관계에 대한 교육 강조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의 [그림 1-1]로 요약됨

추진단계	항목	내용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분석 • 행정자료 분석 • 통계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여성가족(성평등)정책 효과 및 수요 연구 검토 • 대전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사업·조례 분석 • 대전시 여성가족 현황 분석
전문가 집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법론 및 분석 도구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 충남지역 여성정책연구 기관 전문가 참여 • 정책수요 분석 방법 및 설문조사지 개발 자문
세대별 의제발굴 집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도구 개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60대 지역 여성 활동가 6인 참여 • 세대별 여성 의제 논의 및 설문조사지 개발 자문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현황과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거주 성인 남녀 대상 • 성차별 경험과 정도 • 여성가족시설 수요 • 성평등정책 수요 파악
정책 실무자 집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결과 공유 및 정책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수요 결과 공유 • 정책담당자(공무원) 의견 수렴
정책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7기 성평등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요 조사결과 반영 • 대전시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제안 • 대표 사업 제안

[그림 1-1] 연구 추진단계와 주요내용

2장

성평등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

1.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과 성 주류화 제도
2.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2017년 시행계획
3. 대전지역 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2장 성평등 정책1) 추진 배경과 현황

1.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과 성 주류화 제도

-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제정·시행돼 왔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게 됨
-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은 여성에 대한 정책적 시각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함. ‘보호받아야 하거나 복지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양성 간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양성 간 평등한 관계 (gender equality)’를 지향하는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음(배은경, 2016)
- 우선 대전시 성평등정책 추진의 근거가 된 법 제정과 관련한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한 제도 추진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1) ‘여성 발전’ 패러다임에서 ‘성 주류화’로

- 초기의 여성 정책은 남성만큼 배우지 못하고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에 가까웠음. 특히 남성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폭력 피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여성정책 사업들이 기획되고 관련법이 제정됨
- 여성의 참정권 쟁취, 경제권 신장, 취약 여성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1)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법률과 조례 및 기본계획에 “gender equality”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성평등”이란 용어 사용의 적절함에 대한 논쟁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현 법과 조례 및 기본계획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그 외에는 “gender equality”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용어인 “성평등”을 사용하고자 함

여성 정책은 여성이 ‘남성만큼’ 권익과 경제력이 신장되어야 평등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관점을 ‘여성 발전(Women in Development, WID)’ 관점이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에 근거해 초지 여성 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에 많은 부분을 할애함
- WID 관점은 90년대를 지나면서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GAD)관점’으로 그리고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관점으로 다양화 혹은 다변화 됨(마경희, 2007; 이재경·김경희, 2012; 배은경, 2016)
- 여성 발전관점이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 사업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남성만큼’ 혹은 신장과 평등의 기준이 남성의 삶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 또한 사실임
- 여성의 특성과 경험이 의사결정과 정치에 반영되어 성에 따른 관계 자체가 평등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GAD 관점이라 할 수 있음. GAD 관점은 여성의 특수한 요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한 특징이 있음
- GAD 관점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들을 강조했고, 이 관점은 ‘성별에 따른 특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평등하게 반영되어 운영되는지’에 주목하는 ‘성 주류화(GM)’ 관점과 연계됨
- GM관점은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포괄성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평등 기준점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비판(마경희, 2007; 배은경, 2016) 받기도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한 성 주류화 제도의 양적 성장과 확산을 가져오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

2) 성 주류화 제도의 확산

- 최근 10년 간 GM 전략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음

- 대전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은 2012년 4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개소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양적으로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표 2-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의 양적 성장을 보여줌

[표 2-1] 대전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의 변화(사업기준, 2005~2015)

(단위: 건)

연도	과제 수		
	전체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구
2005	4	4	-
2006	14	9	5
2007	23	8	15
2008	66	16	50
2009	141	19	122
2010	106	12	94
2011	99	14	85
2012	363	92	271
2013	499	113	386
2014	560	110	450
2015	605	122	483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2005년 4건에서 출발한 대전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5년 605건에 달해, 전체 단위사업 대비 60% 안팎의 작성율을 보이고 있음
- 조례 제·개정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 173건에서 2015년 35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계획은 년 중 1~2건에 불과해 전체 작성 건 수 중 극소수에 불과함

-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2013회계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모두 189건 작성한 데 비해, 2016회계년도에는 광역시가 총 106건, 5개 기초자치구가 총 147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에서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짐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한 성 주류화 제도의 양적 증가와 대상 영역의 확산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평등을 가져왔는가, 혹은 젠더 관계의 평등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음(신경아, 2016)
- 분석평가의 결과물이자 실질적 정책 개선이기도 한 성인지 예산의 편성이 그저 기존 예산의 배분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임
- ‘편성안’에 그치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이 실질적인 정책 사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예산의 책정이 필요함

2.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2017년 시행계획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사업 내용에 기초해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음
- 대전광역 시도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와 제8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조에 근거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옴
- 2016년 추진한 성평등 정책 사업의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의 [표 2-2]로 요약됨

[표 2-2] 2016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주요 추진 실적

구분	추진 내용
양성평등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과 시민대상 양성평등교육 등 성인지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공무원 442명, 시민 등 120개 기관 19,498명 • 여성친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 제정('16.6월)으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여성가족부) • 여성친화서포터즈단 운영(30명) : 교육, 견학 모니터링 실시
일·가정 양립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가족친화기업 지속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친화기업 협약 15개, 가족친화기관 인증(15개)
고용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실시로 조기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3,300여명 취업 - 여성 취·창업 박람회 개최(9월) : 200개 기업, 432명 취업 • 여성 창업시설을 갖춘 북부여성가족원 개관(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실(4개), 창업준비실(10개), 코워킹공간(1실)
공공·국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광역시 중 여성위원 위촉율 1위(39.6%)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여성 안전병원 협약(6월) : 안전병원 26개소 • 112와 연계한 유시티통합센터 활용과 CCTV 설치(809대)
건강과 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지원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목표의 사전 수립에 이에 근거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 안전·돌봄·일자리 위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개 사업중 안전·돌봄·일자리 67개 사업(54%) • 성별영향분석평가 가등급 획득

참조: 대전광역시, 「2017년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 대전시는 2016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 예산 7977억 5천6백 만원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주요 추진 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부여성가족원 개관,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둠
- 2016년도 시행계획 예산이 상당했던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비용 등 보육 관련한 예산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임
- 2017년도 대전시 시행계획 예산은 2706억 8천 6백 여 만원으로, 보육 관련 예산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함
- 대전광역시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2017년 시행 계획’에 밝힌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 [그림 2-1]과 같음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목표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정책 과제	대과제 (7개)	중과제 (15개)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2. 일·가정 양립 확산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3. 고용 격차 해소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확대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6. 건강과 복지 증진	● 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출처: 대전광역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그림 2-1]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 2017년 대전시가 성평등 제고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크게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가족 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인권보호 및 안전도시 조성’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음
- 「2017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의 [표 2-3]으로 요약됨

[표 2-3] 2017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주요 추진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양성평등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추진동력 강화 및 여성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 활성화 지원(2억원) •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교육 실시
일·가정 양립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휴가활성화,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육아 휴직 대체인력 확보 • 보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 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으로 보육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고용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일자리 및 취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드를 반영한 직업훈련 강화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북부여성가족원의 창업보육실과 코워킹 공간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 여성의 역량강화와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카데미, 성평등정책포럼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여성과학기술인 연구 단절예방과 여성기업인 자금 및 제품구매 지원 등
공공·국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 확대

구분	추진 내용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안전도시 조성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EPED)시범사업(2개소) 및 가이드라인 수립 • 폭력예방 및 자립지원 등 인권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자 보호,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폭력방지 교육 등 안전망 구축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 피해자 원스톱 지원
건강과 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및 성인지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평등지수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과 연계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전담직위 공무원 운영

참조: 대전광역시, 「2017년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3. 대전지역 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 노동시장, 인구, 가족 등 정책 수혜자 및 정책 집행 현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성평등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요구하고 있음
- 인구, 경제활동 및 안전 등 주요 정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수요를 모색하고자 함

1)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

- 2017년 7월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대전시 총 인구는 1백 5십만7천597명이며, 남성은 75만3천555명이고 여성은 75만4천42명으로 나타남
- 여성 인구가 조금 더 많아, 2017년 7월 현재 대전 인구의 성비는 99.94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인구의 증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표 2-4] 인구 성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전시	100.32	100.17	100.12	100.07	99.94
동구	102.63	102.41	102.37	102.37	102.13
중구	99.59	99.11	98.95	98.97	98.53
서구	97.35	97.19	97.12	97.13	97.16
유성구	101.91	101.94	101.93	101.79	101.76
대덕구	103.42	103.50	103.55	103.36	103.14

주: 1)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남자인구/여자인구*100)

2) 각 연도 7월 말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7년 8월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인구는 총 17만 8천223명이며, 2012년 이후 대전시의 노령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음

[표 2-5] 노령화 지수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시	57.4	61.8	67.1	73.7	78.8
동구	84.9	90.7	99.4	110.1	118.8
중구	83.9	90.5	100.4	110.6	119.1
서구	49.9	54.0	59.0	65.2	69.7
유성구	32.7	34.8	36.7	39.9	42.4
대덕구	59.8	66.3	73.5	83.0	92.3

주: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노령화 지수는 2012년 50%대에서 2016년에는 78.8%까지 상승함
- 2000년 이후 대전시의 일반 가구 수는 증가 추세에 있음
-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수는 줄고 있지만, 부부가구 한 부모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표 2-6] 참조)

[표 2-6] 가족형태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2000	2005	2010	2015
일반가구		413,758	478,865	532,643	582,504
핵가족	부부	40,088	54,185	67,678	82,364
	부부와 미혼자녀	209,157	208,938	203,195	193,403
	한부(모)와 미혼자녀	34,628	45,586	52,718	64,576
	조부(모)와 미혼손자녀	1,086	1,530 ²⁾	3,417	2,980
직계가족	부부와 양(편)친	2,581	3,201	3,786	3,522
	부부와 양(편)친과 미혼자녀	22,662	21,158	20,060	16,437
4세대 이상 가족		566	426	336	270
1인가구		62,742	98,678	134,938	169,391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일반가구 내 외국인은 포함)

2)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지칭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도별 전수집계결과

2)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 대전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전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인 53.0%(2017년 8월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도 계속 23%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격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음

2) 2005년까지는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항목으로만 조사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 항목으로 분리되어 조사가 이루어짐(2010년 숫자는 두 항목의 합산) 그런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갑자기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음

[표 2-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0.1	61.6	62.5	62.5	61.9
여성	48.8	50.4	51.8	53.3	51.3
남성	71.9	73.2	73.8	72.1	72.9

주: 1)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2) 매년 2/4분기자료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도별 전수집계결과

- 산업에 따른 성별 분리 현상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종사 비율을 보이는 곳은 4차산업, 즉 사회보장, 서비스, 교육 등의 업종이며, 제조업을 비롯한 1,2차 산업의 남성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4차산업 분야 여성 종사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과 농업 등 1차산업 분야 남녀 종사 격차가 줄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표 2-8] 산업별 종사자 성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산업 ^{a)}	507.0	778.9	563.3	422.7	362.3
2차산업 ^{b)}	273.5	274.4	283.7	290.5	285.9
3차산업 ^{c)}	145.0	142.0	135.8	134.2	146.2
4차산업 ^{d)}	99.9	96.9	94.1	92.5	91.0

a) 1차산업: 농·임업 및 어업 포함

b) 2차산업: 광업, 제조업 포함

c) 3차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포함

d) 4차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주: 성비=(남자인구/여자인구)*100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연도별집계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 통계청이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2%, 약 6만 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 경력단절 여성의 수가 크게 늘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9]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천 명, %)

	2013	2014	2015	2016
15-54세 기혼여성	307	298	297	283
비취업여성	131	126	120	111
경력단절여성	69 (22.5)	81 (27.2)	68 (22.9)	63 (22.3)

주: 1) 상반기(4월)조사 기준
 2) 2013년부터 행정구역 시도 단위별로 집계
 3) 2014년부터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돌봄’이 포함됨
 4) 괄호 안은 ‘경력단절여성/기혼여성*10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3) 복지

- 대전시 노령연금수급자의 32.7%는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점(실질적 여성 노령인구)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후생활보장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0] 노령연금수급자 현황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65,292	68,088	70,829	76,328	83,092
여성	20,163	21,213	22,277	24,415	27,162
남성	45,129	46,875	48,552	51,913	55,930
여성비율	30.9	31.2	31.5	32.0	32.7

주: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대전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크지 않으나, 여성의 가입비율이 남성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13,955	424,158	436,724	450,414	463,288
여성	186,739	193,242	201,433	210,281	217,005
남성	227,216	230,916	235,291	240,133	246,283
여성비율	45.1	45.6	46.1	46.7	46.8

주: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취약·빈곤여성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급권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 간 여성의 수급권자 비중이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절대수도 증가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복지 수혜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1,819	40,786	40,133	50,744	51,440
여성	23,688	23,030	22,555	27,962	28,161
남성	18,131	17,756	17,578	22,782	23,279
여성비율	56.6	56.5	56.2	55.1	54.7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4) 대표성과 정치참여

- 대전시 여성의 정치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여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배출은 하지 못했으나, 광역의회 및 기초 의회의 여성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표 2-13] 참조)

[표 2-13] 광역 및 기초 의회의원 현황

(단위: 명, %)

	2002		2006		2010		2014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계	19(3)	75	19(3)	63(8)	22(3)	63(8)	22(3)	63(9)
여성	3(3)	1	3(3)	10(6)	4(3)	16(7)	6(3)	20(9)
남성	16(0)	74	16(0)	53(2)	18(0)	47(1)	16(0)	43(0)
여성비율	15.8	1.3	15.8	15.9	18.2	25.4	27.3	31.7

- 주: 1)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괄호 안은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
 3) 여성비율=여성/전체*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대전광역시가 매년 발표하는 ‘인사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5급이상 고급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알 수 있음
- 최근 3년 간 대전시 전체 공무원 중 5급이상 여성 공무원의 수는 늘어 가는 추세임

[표 2-14] 직급별 여성 공무원 현황

(단위: 명, %)

	2014		2015		2016	
	전체공무원	5급이상	전체공무원	5급이상	전체공무원	5급이상
계	7,139	670	7,197	664	7,322	675
여성	2,307	94	2,375	94	2,500	101
남성	4,832	576	4,822	570	4,822	574
여성비율	32.3	14.0	33.0	14.2	34.1	15.0

출처: 대전광역시, 「인사통계」

- 여성 고공무원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변화(증가)'를 살펴보려면, 기획, 예산, 인사 등 주요 부서의 여성 공무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래 [표 2-15]는 대전광역시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현황을 나타냄
- 기획과 예산 부서의 여성 비율은 약 30~40%로 최근 5년간 계속 늘고 있으며, 인사와 감사 부서의 여성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표 2-15] 대전광역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799	899	982	682	836
여성공무원		211	305	324	225	296
여성비율		26.4	33.9	33.0	33.0	35.4
기획	여성공무원	18	22	23	25	31
	여성비율	29.0	33.8	35.4	42.4	40.3
예산	여성공무원	15	16	14	16	16
	여성비율	31.3	33.3	31.1	35.6	34
인사	여성공무원	15	13	12	11	15
	여성비율	46.9	39.4	35.3	39.3	48.4
감사	여성공무원	8	13	15	15	18
	여성비율	12.9	19.4	21.7	25.4	26.9
실국 주무과	여성공무원	155	241	260	158	216
	여성비율	26.1	35.1	33.8	32.2	35.2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정의 여성 참여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각종 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16]과 같음

- 최근 3년간 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40%를 넘어섰고, 동구와 서구도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넘고 있음
- 중구가 33.7%로 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여성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가 늘고 있는 경향을 보임

[표 2-16]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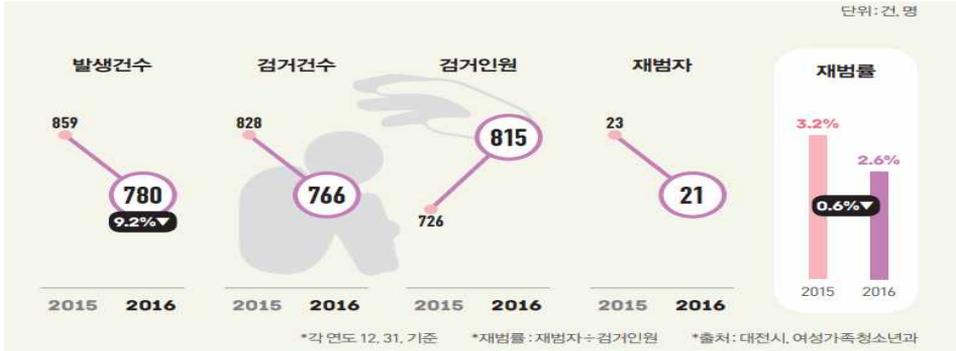
(단위: 개, 명, %)

	2014			2015			2016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여성 비율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여성 비율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여성 비율
계	471	1,700	34.4	442	1,834	37.5	442	2,040	39.7
대전시	119	639	35.5	113	823	39.6	113	900	40.7
동구	58	155	33.7	55	161	38.4	55	173	40
중구	61	151	30.3	54	136	30.7	54	141	33.7
서구	83	374	40.5	78	358	43.7	78	378	44
유성구	81	196	27.5	84	185	30.2	84	269	35.5
대덕구	69	185	34.1	58	171	32.8	58	179	38.2

출처: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5) 안전

- 최근 성평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분야가 안전임
-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
- 다음 [그림 2-2]는 대전시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나타냄



출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제64호(2017. 4. 30)

[그림 2-2] 대전시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 성폭력 발생이 2015년에 비해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폭력 발생은 늘어남
- 다음 [그림 2-3]은 대전시 가정폭력 발생과 검거인원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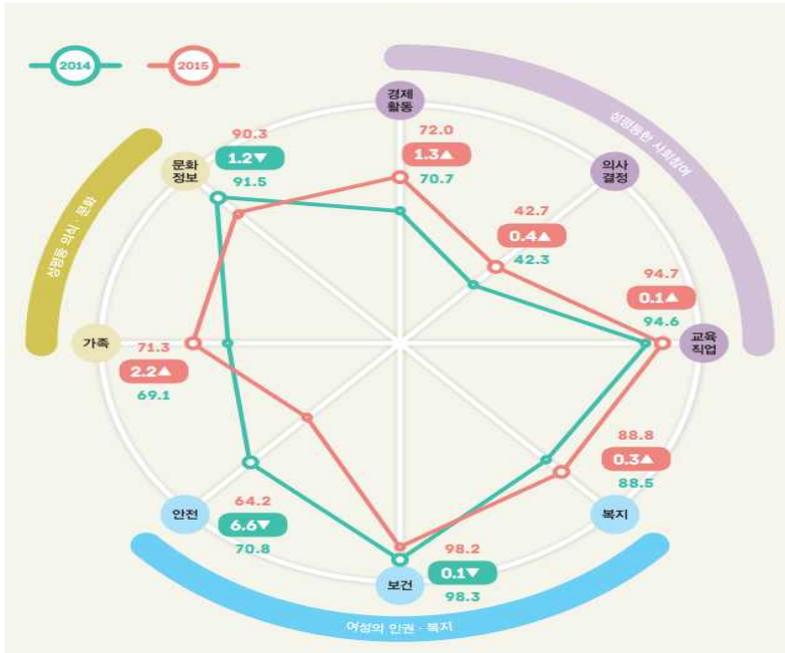


출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제64호(2017. 4. 30)

[그림 2-3] 대전시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가정폭력 발생 수는 1,760건으로 전년에 비해 445건이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증가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은 가정 내 성평등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함
-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16개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지수 결과에서도 대전지역은 안전분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 [그림 2-4]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 성평등 지수의 2014년, 2015년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것임



출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제63호(2017. 3. 31)

[그림 2-4] 대전시 지역 성평등 지수 분야별 현황

- 대전지역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2011년 이래 줄곧 성평등 상위 지역으로 구분돼 왔으나, 위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안전과 문화·정보분야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2015년 평가 결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안전 분야 지표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각 지표별 여성과 남성 현황을 파악해 성평등 수준을 추정하는 방식임
- 성폭력 여성 피해자의 증가와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야 성평등 지수의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은 사회조사를 통해 시민이 느끼는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성(안전감)을 조사해 오고 있음

- 얼마나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 체감 정도를 성별로 달리 파악해 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 측정의 한 지표로 사용해 옴
- 아래 [표 2-17]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사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인식)” 결과를 보여줌

[표 2-17]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성별	2010	2012	2014	2016
매우안전	여성	0.9	0.3	0.3	0.4*
	남성	2.6	1.3	0.9	1.6
비교적안전	여성	13.2	10.6	9.3	10.1
	남성	19.1	16.2	13.8	15.7
보통	여성	35.5	42.4	33.5	37.6
	남성	39.3	46.3	43.0	43.3
비교적불안	여성	43.1	40.3	43.6	40.4
	남성	32.4	30.8	33.3	31.2
매우불안	여성	7.3	6.4	13.2	11.4
	남성	6.6	5.4	9.0	8.2

주: 1) 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표기 없음: 상대표준오차가 25% 미만인 경우(신뢰도 높음)

*: 상대표준오차가 25% ~ 50% 미만인 경우(신뢰도 다소 낮음)

** : 상대표준오차가 50% 이상인 경우(신뢰도 낮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다고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2012년 조사할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다”는 여성 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평가 결과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3장

성평등정책 수요조사 분석

1. 성(불)평등한 생활
2. 성평등 평가와 전망
3.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와 수요
4.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

3장 성평등정책 수요조사 분석

1. 성(불)평등한 생활

1) 차별의 경험

(1) 가정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여성과 남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적 관행과 사건에 대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 학교, 직장과 기타 사회생활로 나누어 시민들에게 질의했음
- 가사노동이나 양육 및 돌봄 노동, 그리고 가족구성원 간 재산상속 등 가정생활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은 다음 [표 3-1]과 같이 응답함

[표 3-1]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 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없음	있음	χ^2 (p)
전체	1593 (100.0)	804 (50.5)	789 (49.5)	
남성	808 (100.0)	488 (60.4)	320 (39.6)	64.616*** (.000)
여성	785 (100.0)	316 (40.3)	469 (59.7)	

* $p < .05$, ** $p < .01$, *** $p < .001$

- 가사나 양육, 재산상속 등 가정생활 관련해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가란 물음에 여성 응답자의 59.7%가 있다고 답한데 비해 남성은 39.6%가 있다고 답해,

-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과 성별 간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위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와 성별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한 성차별 정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1점)에서 매우 강한 차별(5점)이라 할 때,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가 어떠한가란 물음에 여성은 평균 2.53점을, 남성은 평균 2.21점을 보였으며,
- 여성이 더 강한 차별 경험을 보이는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음([표 3-2]의 t-test 결과 참조)

[표 3-2]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 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 차별	미미한 차별	중간 정도의 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 차별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체	789 (100.0)	210 (26.6)	211 (26.7)	240 (30.4)	98 (12.4)	30 (3.8)		2.40 (1.118)	
남성	320 (100.0)	109 (34.1)	78 (24.4)	101 (31.6)	20 (6.3)	12 (3.8)	29.084*** (.000)	2.21 (1.097)	-3.936*** (.000)
여성	469 (100.0)	101 (21.5)	133 (28.4)	139 (29.6)	78 (16.6)	18 (3.8)		2.53 (1.116)	

* $p < .05$, ** $p < .01$, *** $p < .001$

주.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 또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도 성별과 가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가 의미 있는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 여성이 가사나 육아, 재산상속 등 가정생활 속에서 남성보다 더 강한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만을 따로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 성차별적 경험을 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여성 안에서) 연령과 가정 내 성차별 경험 여부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3] 여성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에서 성차별 경험 여부 - 연령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없음	있음	χ^2 (p)
전체	785 (100.0)	316 (40.3)	469 (59.7)	
20대	141 (100.0)	75 (53.2)	66 (46.8)	16.002** (.003)
30대	173 (100.0)	75 (43.4)	98 (56.6)	
40대	208 (100.0)	76 (36.5)	132 (63.5)	
50대	169 (100.0)	60 (35.5)	109 (64.5)	
60대	94 (100.0)	30 (31.9)	64 (68.1)	

* $p < .05$, ** $p < .01$, *** $p < .001$

- 여성 내에서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래 [표 3-4]를 보면, 4,5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 정도 평균이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 카이제곱 검정 결과도 연령과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가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4] 여성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 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 차별	미미한 차별	중간 정도의 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 차별	χ^2 (p)	평균 (표준 편차)	F (p)
전체	469 (100.0)	101 (21.5)	133 (28.4)	139 (29.6)	78 (16.6)	18 (3.8)		2.53 (1.116)	
20대	66 (100.0)	19 (28.8)	17 (25.8)	13 (19.7)	14 (21.2)	3 [#] (4.5)	37.720** (.002)	2.47 (1.243)	.814 (.517)
30대	98 (100.0)	14 (14.3)	38 (38.8)	32 (32.7)	10 (10.2)	4 [#] (4.1)		2.51 (.997)	
40대	132 (100.0)	24 (18.2)	36 (27.3)	46 (34.8)	25 (18.9)	1 (0.8)		2.57 (1.020)	
50대	109 (100.0)	29 (26.6)	19 (17.4)	29 (26.6)	26 (23.9)	6 [#] (5.5)		2.64 (1.258)	
60대	64 (100.0)	15 (23.4)	23 (35.9)	19 (29.7)	3 (4.7)	4 [#] (6.3)		2.34 (1.087)	

*p<.05, **p<.01, ***p<.001

#. 해당 셀(16.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³⁾를 가지는 셀임.

주. 여성 중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2)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진로지도, 진학, 상벌 등 학교생활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은 다음 [표 3-5]와 같이 응답함
- 가정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학교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 경험은 52.2%로 높게 나타남

3) Pearson 카이제곱의 경우 전체 셀 수의 25%이상에서 기대 빈도수가 5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유의값을 확인할 수 있음. 기대빈도와 카이제곱 공식은 다음과 같음

$$E = \frac{(C \times R)}{N} \quad \chi^2 = \sum \frac{(O - E)^2}{E}$$

(E : 기대빈도 / C, R : 행과 열의 각 빈도 합 / N : 총 빈도수 / O : 관찰빈도)

- 또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성별과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5]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없음	있음	χ^2 (p)
전체	1593 (100.0)	879 (55.2)	714 (44.8)	
남성	808 (100.0)	504 (62.4)	304 (37.6)	34.344*** (.000)
여성	785 (100.0)	375 (47.8)	410 (52.2)	

* $p < .05$, ** $p < .01$, *** $p < .001$

-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에 대해, 남성은 평균 2.21점, 여성은 평균 2.31점으로 평가해, 여성이 더 강한 성차별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test 결과 의미 있는 차이였음
-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성별과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가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나타냄

[표 3-6]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 차별	미미한 차별	중간 정도의 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 차별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체	714 (100.0)	207 (29.0)	194 (27.2)	240 (33.6)	60 (8.4)	13 (1.8)		2.27 (1.027)	
남성	304 (100.0)	97 (31.9)	78 (25.7)	103 (33.9)	20 (6.6)	6 (2.0)	4.175 (.383)	2.21 (1.029)	-1.308*** (.191)
여성	410 (100.0)	110 (26.8)	116 (28.3)	137 (33.4)	40 (9.8)	7 (1.7)		2.31 (1.025)	

* $p < .05$, ** $p < .01$, *** $p < .001$

주.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 응답자 중 여성만을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음(카이제곱 검정 결과)
- 연령대에 따른 성차별 경험의 정도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강한 차별을 경험한 경향은 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음([부표 1-1] 참조)

(3)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채용, 임금, 승진 등 직장생활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은 다음 [표 3-7]과 같이 응답함
- 여성 응답자의 59.7%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고, 남성 응답자의 41.5%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과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은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음

[표 3-7]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없음	있음	χ^2 (p)
전체	1593 (100.0)	789 (49.5)	804 (50.5)	53.253*** (.000)
남성	808 (100.0)	473 (58.5)	335 (41.5)	
여성	785 (100.0)	316 (40.3)	469 (59.7)	

* $p < .05$, ** $p < .01$, *** $p < .001$

-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성차별의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남성은 평균 2.37점, 여성은 2.67점 정도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도에 대한 성별 차이는 t-test와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임이 드러남([표 3-8]참조)

[표 3-8]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 차별	미미한 차별	중간 정도의 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 차별	χ^2 (p)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804 (100.0)	175 (21.8)	209 (26.0)	261 (32.5)	126 (15.7)	33 (4.1)		2.54 (1.116)	
남성	335 (100.0)	99 (29.6)	80 (23.9)	101 (30.1)	43 (12.8)	12 (3.6)	21.258*** (.000)	2.37 (1.140)	-3.755** (.000)
여성	469 (100.0)	76 (16.2)	129 (27.5)	160 (34.1)	83 (17.7)	21 (4.5)		2.67 (1.082)	

* $p < .05$, ** $p < .01$, *** $p < .001$

주.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 여성 응답자만을 별도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3,40대 응답자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 특히 30대 여성이 생각하는 성차별 정도가 (5점 척도 중 평균) 2.93점으로 60대 2.43점이나 20대 평균 2.54점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부표 1-2] 참조)
-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여성 연령대와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유무는 의미 있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한 성차별의 정도와 연령대는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주진 않음

[표 3-9] 여성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경험 여부 - 연령별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없음	있음	χ^2 (p)
전체	785 (100.0)	316 (40.3)	469 (59.7)	32.523*** (.000)
20대	141 (100.0)	82 (58.2)	59 (41.8)	
30대	173 (100.0)	61 (35.3)	112 (64.7)	
40대	208 (100.0)	65 (31.3)	143 (68.8)	
50대	169 (100.0)	61 (36.1)	108 (63.9)	
60대	94 (100.0)	47 (50.0)	47 (50.0)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 가정과 직장생활 외 기타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적 있는지 물었을 때,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었음
-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적 경험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하여, 외모비교, 남성 혹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 등 포괄적인 성과 관련한 고정관념, 부적절하고 부당한 대우를 의미함
- 아래 [표 3-10]에 나타나 있듯이, 여성 응답자의 성차별 경험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성별과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가 관련 있음을 보여줌

[표 3-10]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없음	있음	χ^2 (p)
전체	1593 (100.0)	750 (47.1)	843 (52.9)	
남성	808 (100.0)	475 (58.8)	333 (41.2)	90.184*** (.000)
여성	785 (100.0)	275 (35.0)	510 (65.0)	

*p<.05, **p<.01, ***p<.001

- 여성과 남성 각기 어느 정도의 성차별적 경험을 했는지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여성은 평균 2.60점, 남성은 2.31점으로 여성이 경험한 성차별 정도가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t-test결과 의미 있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남([표 3-11]참조)
-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성별과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유무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줌

[표 3-11]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정도 - 남녀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 차별	미미한 차별	중간 정도의 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 차별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체	843 (100.0)	210 (24.9)	217 (25.7)	256 (30.4)	117 (13.9)	43 (5.1)		2.49 (1.155)	
남성	333 (100.0)	106 (31.8)	80 (24.0)	100 (30.0)	33 (9.9)	14 (4.2)	18.350** (.001)	2.31 (1.142)	-3.661*** (.000)
여성	510 (100.0)	104 (20.4)	137 (26.9)	156 (30.6)	84 (16.5)	29 (5.7)		2.60 (1.149)	

*p<.05, **p<.01, ***p<.001

주.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 여성 응답자만을 별도 추출해,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유무를 물었을 때, 3,40대의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과 성차별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었음([부표 1-3] 참조)

[표 3-12] 여성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 차별	미미한 차별	중간 정도의 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 차별	χ^2 (p)	평균 (표준 편차)	F (p)
전체	510 (100.0)	104 (20.4)	137 (26.9)	156 (30.6)	84 (16.5)	29 (5.7)		2.60 (1.149)	
20대	79 (100.0)	17 (21.5)	17 (21.5)	26 (32.9)	15 (19.0)	4 [#] (5.1)	35.397** (.004)	2.65 ^{ab} (1.166)	4.607** (.001)
30대	119 (100.0)	10 (8.4)	28 (23.5)	48 (40.3)	25 (21.0)	8 (6.7)		2.94 ^b (1.028)	
40대	144 (100.0)	27 (18.8)	51 (35.4)	37 (25.7)	22 (15.3)	7 (4.9)		2.52 ^{ab} (1.109)	
50대	110 (100.0)	36 (32.7)	27 (24.5)	30 (27.3)	10 (9.1)	7 (6.4)		2.32 ^a (1.203)	
60대	58 (100.0)	14 (24.1)	14 (24.1)	15 (25.9)	12 (20.7)	3 [#] (5.2)		2.59 ^{ab} (1.214)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8.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Post-hoc (Scheffe) a < b

주. 여성 중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 여성 응답자 세대별로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가 어떠한지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30대 여성의 평균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대에 따라 성차별적 경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 있었음
-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다른 영역에서 보다 사회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적 경험은 특히 20대에게서 다르게 나타남

- 20대 여성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강하게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하진 않았으나, 성희롱, 외모비교나 성비하 등 다양하고 소소한 태도와 관습에서 오는 차별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여성 연령 집단 간 분산분석(ANOVA)의 사후검정(Scheffe's Method) 결과는 특히 30대와 50대가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가 상당히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줌

2) (불)평등한 시간과 어려움

- 노동과 가사, 돌봄, 여가 시간을 점검하여 일상생활 구조와 행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노동가 여가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략 발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노동과 가사 및 돌봄, 여가 시간을 성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주 7일 일 24시간이라는 같은 자원을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분배해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별에 따른 '시간 빈곤'의 문제 즉 '성불평등한 일상생활' 구성의 한 단면을 드러냄
- (주중과 주말을 포함하여) 총 응답자 1,593명의 1일 평균 노동 시간은 6.30시간이며, 1일 평균 여가시간은 2.20시간으로 나타남
-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02시간,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돌봄시간은 1일 평균 1.77시간으로 나타남
- 성별로 각 시간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노동과 가사, 돌봄시간의 차이가 있었음([표 3-13]참조)
-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노동했으나, 가사와 돌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남녀비교

(단위: 명, 시간)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p)
노동시간	남성	808	6.51	3.167	2.667** (.008)
	여성	785	6.08	3.234	
가사시간	남성	808	1.39	1.453	-13.508*** (.000)
	여성	785	2.67	2.236	
돌봄시간	남성	808	1.35	1.863	-7.198*** (.000)
	여성	785	2.20	2.740	
여가시간	남성	808	2.18	1.974	-.412 (.681)
	여성	785	2.22	1.925	

* $p < .05$, ** $p < .01$, *** $p < .001$

-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4]와 같음
- 분산분석(ANOVA)결과는 연령대별로 모든 영역의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4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는 3,4,50대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비해, 20대와 60대는 (30~50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줌
- 가사시간 역시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는데, 60대의 가사시간이 가장 길고, 30~50대의 가사시간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유아와 아동·청소년을 돌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3,40대의 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고, 특이하게도 60대의 돌봄시간이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나고 있어, 60대 여성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사후검정결과는 60대의 돌봄시간사용 패턴이 3,40대와 유사함을 보여줌)
- 여가시간도 세대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0대와 20대가 가장 길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0대 여성의 여가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4] 여성의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연령별비교

(단위: 명, 시간)

구분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p)
노동시간	20대	141	5.21 ^b	3.765	36.942 ^{***} (.000)
	30대	173	6.84 ^c	2.916	
	40대	208	7.11 ^c	2.457	
	50대	169	6.45 ^c	2.760	
	60대	94	3.06 ^a	3.138	
가사시간	20대	141	1.21 ^a	1.307	27.481 ^{***} (.000)
	30대	173	2.81 ^b	2.476	
	40대	208	2.81 ^b	1.926	
	50대	169	2.80 ^b	1.995	
	60대	94	4.03 ^c	2.757	
돌봄시간	20대	141	1.13 ^a	1.876	9.808 ^{***} (.000)
	30대	173	2.80 ^b	3.348	
	40대	208	2.53 ^b	2.684	
	50대	169	1.85 ^{ab}	1.818	
	60대	94	2.62 ^b	3.495	
여가시간	20대	141	2.51 ^{ab}	2.196	7.407 ^{***} (.000)
	30대	173	1.90 ^a	1.875	
	40대	208	1.94 ^a	1.71	
	50대	169	2.19 ^a	1.658	
	60대	94	3.02 ^b	2.200	

* $p < .05$, ** $p < .01$, *** $p < .001$

Post-hoc (Scheffe) $a < b < c$

- 5개 자치구 별 여성의 생활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중구 여성의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유성구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시간이 가장 길며, 동구 여성의 여가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차이는 있으나, 분산분석 결과 상 5개 자치구별 여성의 생활시간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부표 1-4] 참조)
- t-test를 활용하여 연령대 내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20대 남성과 여성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대 여성은 평균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 여성과 남성은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노동과 가사, 돌봄시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임
- 30대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간은 짧지만, 가사와 돌봄시간은 두 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0대도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여성과 남성 간 생활시간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짧고, 가사와 돌봄시간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점이 30대와 유사함
- 50대 남성과 여성은 모든 시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노동과 가사 및 돌봄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앞선 3,40대와 유사하나,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길게 나타난 특징을 보임
- 60대는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노동과 가사, 돌봄시간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가사시간의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 특징이 있음

[표 3-15]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연령별 남녀비교

(단위: 명, 시간)

연령대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p)
20대	노동시간	남성	159	3.63	3.864	-3.563***
		여성	141	5.21	3.765	(.000)
	가사시간	남성	159	1.37	1.738	.898
		여성	141	1.21	1.307	(.370)
	돌봄시간	남성	159	1.21	2.048	.363
		여성	141	1.13	1.876	(.717)
	여가시간	남성	159	3.08	2.314	2.185*
		여성	141	2.51	2.196	(.030)
30대	노동시간	남성	171	7.52	2.294	2.393*
		여성	173	6.84	2.916	(.017)
	가사시간	남성	171	1.38	1.230	-6.781***
		여성	173	2.81	2.476	(.000)
	돌봄시간	남성	171	1.40	1.596	-4.939***
		여성	173	2.80	3.348	(.000)
	여가시간	남성	171	1.80	1.771	-.511
		여성	173	1.90	1.875	(.610)
40대	노동시간	남성	204	7.83	2.344	3.054**
		여성	208	7.11	2.457	(.002)
	가사시간	남성	204	1.54	1.579	-7.316***
		여성	208	2.81	1.926	(.000)
	돌봄시간	남성	204	1.78	2.118	-3.118**
		여성	208	2.53	2.684	(.002)
	여가시간	남성	204	1.81	1.926	-.703
		여성	208	1.94	1.710	(.482)
50대	노동시간	남성	176	7.46	1.669	4.094***
		여성	169	6.45	2.760	(.000)
	가사시간	남성	176	1.26	1.216	-8.618***
		여성	169	2.80	1.995	(.000)
	돌봄시간	남성	176	1.11	1.713	-3.879***
		여성	169	1.85	1.818	(.000)
	여가시간	남성	176	1.80	1.225	-2.501*
		여성	169	2.19	1.658	(.013)
60대	노동시간	남성	98	4.96	3.207	4.137***
		여성	94	3.06	3.138	(.000)
	가사시간	남성	98	1.33	1.420	-8.494***
		여성	94	4.03	2.757	(.000)
	돌봄시간	남성	98	1.03	1.502	-4.056***
		여성	94	2.62	3.495	(.000)
	여가시간	남성	98	2.81	2.282	-.665
		여성	94	3.02	2.200	(.507)

* $p < .05$, ** $p < .01$, *** $p < .001$

-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 사용 차이를 5개 기초자치구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사와 돌봄시간의 성별 격차는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임([부표1-5] 참조)
- 통계적으로도 여성이 더 많이 가사노동하고 더 오래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5개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서구와 유성구에서만 노동시간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음
-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5개구 동일하나, 동구나 대덕구, 중구는 1일 평균 노동시간의 성별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반면, 서구와 유성의 평균 노동시간 성별 격차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음
- 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와 2순위를 보기 중 고르도록 한 결과는 다음 [표 3-16], [표 3-17]과 같음
- 전체 1,593명의 응답자 중 18.2%는 ‘고용 불안정성과 취업에 따르는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고용안정성 및 취업문제는 여성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어려움(17.5%)이었음
- 남성들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어려움은 ‘저소득과 부채 등 경제적 문제’였으나(14.5%), 여성들은 ‘자기계발시간 부족’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함(11.5%)
- 여성과 남성의 선택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주로 노동과 경제문제-고용, 소득, 노후대비와 관련한 것인데 비해, 여성은 고용이라는 공통의 어려움 외에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자기계발 시간 부족’ ‘가족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임금노동과 일상생활 사이에서의 갈등 관련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카이제곱검정 결과, 여성과 남성의 어려움 내용 분포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음

- 2순위로 선택한 어려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노후 대비’로 전체 응답의 15.4%를 차지했으며, 여성에게서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보임(여성 15.7%, 남성 15.1%)
- 남성은 2순위로 ‘자기계발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15.2%), 그 다음으로 ‘노후대비’와 ‘신체적 건강문제’를 많이 선택함
- 여성은 2순위로 ‘노후대비’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자기계발 시간부족’과 ‘여가시간 부족’을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함
-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이 고용과 소득에서 건강이나 여가로 변화한 점은 유사하나, 여전히 남성은 업무와 소득에 따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성별에 따른 2순위 선택 항목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6]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고용 불안정성/취업문제	저소득/부채등 경제문제	과다한 업무/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기계발 시간부족	노후대비	일-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	신체건강 문제	가족돌봄 문제	여가시간 부족	경력단절	심리적 불안정/우울	가족과의 갈등/불화	사회적 관계형성 유지 어려움	안전문제	기타	χ^2 (p)
전체	1593 (100.0)	290 (18.2)	197 (12.4)	175 (11.0)	175 (11.0)	160 (10.0)	127 (8.0)	127 (8.0)	124 (7.8)	105 (6.6)	54 (3.4)	27 (1.7)	14 (0.9)	7 (0.4)	3 (0.2)	8 (0.5)	
남성	808 (100.0)	153 (18.9)	117 (14.5)	88 (10.9)	85 (10.5)	102 (12.6)	48 (5.9)	60 (7.4)	43 (5.3)	60 (7.4)	20 (2.5)	11 (1.4)	10 (1.2)	6 [#] (0.7)	0 [#] (0.0)	5 [#] (0.6)	55.699*** (.000)
여성	785 (100.0)	137 (17.5)	80 (10.2)	87 (11.1)	90 (11.5)	58 (7.4)	79 (10.1)	67 (8.5)	81 (10.3)	45 (5.7)	34 (4.3)	16 (2.0)	4 (0.5)	1 [#] (0.1)	3 [#] (0.4)	3 [#] (0.4)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20.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주.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기타 제외)

[표 3-17]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2순위)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노후대비	자기개발 시간부족	신체건강 문제	여가시간 부족	저소득 부채등 경제문제	과다한 업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일-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	가족돌봄 문제	고용 불안정성/ 취업문제	심리적 불안정/ 우울	사회적 관계형성 유지 어려움	경력단절	가족과의 갈등/ 불화	안전문제	기타	χ^2 (p)
전체	1555 (100.0)	239 (15.4)	225 (14.5)	209 (13.4)	203 (13.1)	142 (9.1)	110 (7.1)	101 (6.5)	86 (5.5)	67 (4.3)	59 (3.8)	45 (2.9)	33 (2.1)	17 (1.1)	8 (0.5)	11 (0.7)	
남성	790 (100.0)	119 (15.1)	120 (15.2)	111 (14.1)	103 (13.0)	76 (9.6)	77 (9.7)	31 (3.9)	45 (5.7)	30 (3.8)	30 (3.8)	15 (1.9)	12 (1.5)	10 (1.3)	7 [#] (0.9)	4 (0.5)	49.068*** (.000)
여성	765 (100.0)	120 (15.7)	105 (13.7)	98 (12.8)	100 (13.1)	66 (8.6)	33 (4.3)	70 (9.2)	41 (5.4)	37 (4.8)	29 (3.8)	30 (3.9)	21 (2.7)	7 (0.9)	1 [#] (0.1)	7 (0.9)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6.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주.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기타 제외)

- 여성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나누고,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와 2순위 항목 선택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대 여성은 ‘고용불안정성과 취업문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34.8%), 30대 여성은 ‘가족돌봄문제’를(21.4%) 많이 선택한데 비해,
- 40대 여성은 ‘고용 불안정성과 취업(13.9%)’ ‘자기계발 시간부족 (13.5%)’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13.9%)’ ‘가족돌봄문제 (13.0%)’로 고용과 경력단절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균형에 따른 어려움을 골고루 문제로 지적한 특징을 보임
- 50대 여성은 ‘가족돌봄’이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상당히 줄어든 데 비해 ‘신체 건강문제’와 ‘노후대비’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으며,
- 60대 여성은 ‘신체 건강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24.5%)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임
- 연령대별 여성의 어려움 1순위 선택은 카이제곱검정 결과 연령과 어려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음
- 여성들이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어려움은 ‘노후대비’ 였으나 (15.7%), 이는 특히 5,60대에서 많이 선택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20대 여성은 ‘여가시간 부족’을(19.3%), 30대는 ‘자기계발 시간 부족’을 (19.5%), 40대는 노후대비 외 ‘신체적 건강문제(15.2%)’를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 연령대별 여성의 2순위 어려움 선택 결과도, 카이제곱검정결과, 연령과 어려움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남

[표 3-18] 여성이 생각하는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고용불안 정성/ 취업문제	자기계발 시간부족	과다한 업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돌봄 문제	저소득/ 부채등 경제문제	일-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	신체건강 문제	노후대비	여가시간 부족	경력단절	심리적 불안정/ 우울	가족과의 갈등/ 불화	안전문제	사회적 관계형성 유지 어려움	기타	χ^2 (p)
전 체	785 (100.0)	137 (17.5)	90 (11.5)	87 (11.1)	81 (10.3)	80 (10.2)	79 (10.1)	67 (8.5)	58 (7.4)	45 (5.7)	34 (4.3)	16 (2.0)	4 (0.5)	3 (0.4)	1 (0.1)	3 (0.4)	
20 대	141 (100.0)	49 (34.8)	22 (15.6)	20 (14.2)	3 (2.1)	12 (8.5)	3 (2.1)	2 (1.4)	1 (0.7)	17 (12.1)	6 (4.3)	4 [#] (2.8)	1 [#] (0.7)	0 [#] (0.0)	1 [#] (0.7)	0 [#] (0.0)	222.722*** (.000)
30 대	173 (100.0)	18 (10.4)	9 (5.2)	18 (10.4)	37 (21.4)	21 (12.1)	31 (17.9)	8 (4.6)	8 (4.6)	8 (4.6)	9 (5.2)	2 [#] (1.2)	0 [#] (0.0)	2 [#] (1.2)	0 [#] (0.0)	2 [#] (1.2)	
40 대	208 (100.0)	29 (13.9)	28 (13.5)	23 (11.1)	27 (13.0)	18 (8.7)	29 (13.9)	13 (6.3)	15 (7.2)	8 (3.8)	9 (4.3)	5 [#] (2.4)	3 [#] (1.4)	1 [#] (0.5)	0 [#] (0.0)	0 [#] (0.0)	
50 대	169 (100.0)	26 (15.4)	16 (9.5)	21 (12.4)	11 (6.5)	23 (13.6)	13 (7.7)	21 (12.4)	18 (10.7)	11 (6.5)	5 (3.0)	3 [#] (1.8)	0 [#] (0.0)	0 [#] (0.0)	0 [#] (0.0)	1 [#] (0.6)	
60 대	94 (100.0)	15 (16.0)	15 (16.0)	5 (5.3)	3 (3.2)	6 (6.4)	3 (3.2)	23 (24.5)	16 (17.0)	1 (1.1)	5 [#] (5.3)	2 [#] (2.1)	0 [#] (0.0)	0 [#] (0.0)	0 [#] (0.0)	0 [#] (0.0)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34.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본 표의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5%초과되었으므로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제시함

주. 항목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기타 제외)

[표 3-19] 여성이 생각하는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2순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노후대비	자기계발 시간부족	여가시간 부족	신체건강 문제	일-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	저소득/ 부채등 경제문제	가족돌봄 문제	고용 불안정성/ 취업문제	과다한 업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형성 유지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 우울	경력단절	가족과의 갈등/ 불화	안전문제	기타	χ^2 (p)
전 체	765 (100.0)	120 (15.7)	105 (13.7)	100 (13.1)	98 (12.8)	70 (9.2)	66 (8.6)	41 (5.4)	37 (4.8)	33 (4.3)	30 (3.9)	29 (3.8)	21 (2.7)	7 (0.9)	1 (0.1)	7 (0.9)	
20 대	140 (100.0)	6 (4.3)	27 (19.3)	27 (19.3)	10 (7.1)	8 (5.7)	14 (10.0)	8 (5.7)	8 (5.7)	7 (5.0)	7 (5.0)	14 (10.0)	2 [#] (1.4)	2 [#] (1.4)	0 [#] (0.0)	0 [#] (0.0)	147.906 ^{***} (.000)
30 대	169 (100.0)	22 (13.0)	33 (19.5)	32 (18.9)	14 (8.3)	18 (10.7)	7 (4.1)	18 (10.7)	4 (2.4)	5 (3.0)	5 (3.0)	5 (3.0)	4 [#] (2.4)	0 [#] (0.0)	1 [#] (0.6)	1 [#] (0.6)	
40 대	204 (100.0)	34 (16.7)	28 (13.7)	20 (9.8)	31 (15.2)	29 (14.2)	17 (8.3)	11 (5.4)	9 (4.4)	10 (4.9)	4 (2.0)	1 (0.5)	6 (2.9)	1 [#] (0.5)	0 [#] (0.0)	3 [#] (1.5)	
50 대	160 (100.0)	40 (25.0)	9 (5.6)	15 (9.4)	29 (18.1)	9 (5.6)	16 (10.0)	3 (1.9)	11 (6.9)	7 (4.4)	8 (5.0)	4 (2.5)	6 [#] (3.8)	3 [#] (1.9)	0 [#] (0.0)	0 [#] (0.0)	
60 대	92 (100.0)	18 (19.6)	8 (8.7)	6 (6.5)	14 (15.2)	6 (6.5)	12 (13.0)	1 [#] (1.1)	5 [#] (5.4)	4 [#] (4.3)	6 [#] (6.5)	5 [#] (5.4)	3 [#] (3.3)	1 [#] (1.1)	0 [#] (0.0)	3 [#] (3.3)	

*p<.05, **p<.01, ***p<.001

#. 해당 셀(32.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본 표의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5%초과되었으므로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제시함

주. 항목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기타 제외)

2. 성평등 평가와 전망

1) 성평등 현황 평가

- 성평등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전반적으로 현재 대전시가 ‘얼마나 성평등한가’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는 다음 [표 3-20]과 같음
- ‘전혀 성평등하지 않다’를 1점, ‘매우 성평등하다’를 5점으로 했을 때, 남성은 평균 3.17점을, 여성은 2.93점을 주었으며, t-test 결과 성별 성평등 정도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음
- 카이제곱검정 결과도 성별과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가 연관 있음을 나타냄

[표 3-20] 전반적인 대전시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성평등 하지않다	대체로 성평등 하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성평등 하다	매우 성평등 하다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체	1593 (100.0)	41 (2.6)	294 (18.5)	874 (54.9)	311 (19.5)	73 (4.6)		3.05 (.815)	
남성	808 (100.0)	11 (1.4)	124 (15.3)	435 (53.8)	191 (23.6)	47 (5.8)	37.946*** (.000)	3.17 (.805)	6.090*** (.000)
여성	785 (100.0)	30 (3.8)	170 (21.7)	439 (55.9)	120 (15.3)	26 (3.3)		2.93 (.806)	

*p<.05, **p<.01, ***p<.001

- 여성 응답자만을 따로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나누고 전반적인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달리 했는지 살펴본 결과, 60대 여성이 평균 2.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 가장 낮은 점수를 준 50대 여성 2.84점, 20대 여성 2.95점, 30대 여성 2.96점, 40대 여성 2.93점으로 연령대별 여성의 응답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미하지 않음)[부표1-6] 참조

2) 성평등 전망

- 성평등 관련하여 '10년 후 가정생활 영역에서 얼마나 성평등하게 변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여성과 남성이 답한 결과는 [표 3-21]과 같음
- 5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전망을 밝게 예측한다고 볼 때, 여성의 전망은 남성보다 어두운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전망 평균은 3.36점이며, 남성은 3.56점으로 남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 성별과 성평등 전망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음을 카이제곱검정 결과가 보여주고 있음

[표 3-21]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질것	매우 평등해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체	1593 (100.0)	57 (3.6)	208 (13.1)	501 (31.5)	597 (37.5)	230 (14.4)		3.46 (1.007)	
남성	808 (100.0)	21 (2.6)	94 (11.6)	242 (30.0)	312 (38.6)	139 (17.2)	17.357** (.002)	3.56 (.990)	4.061*** (.000)
여성	785 (100.0)	36 (4.6)	114 (14.5)	259 (33.0)	285 (36.3)	91 (11.6)		3.36 (1.014)	

* $p < .05$, ** $p < .01$, *** $p < .001$

- 여성을 연령대별로 나누고 앞으로 10년 후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를 예상하도록 한 결과, 40대 여성이 3.66점을 쥐, 가장 긍정적으로 성평등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0대 여성이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를 가장 낮게 전망했으며 (3.20점), 연령대와 성평등한 전망 간 연관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남
- 연령 집단 간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Scheffe method)결과는 40대 여성의 응답이 다른 연령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과 집단별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

[표 3-22] 여성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 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 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 질것	매우 평등해 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F (p)
전 체	785 (100.0)	36 (4.6)	114 (14.5)	259 (33.0)	285 (36.3)	91 (11.6)		3.36 (1.014)	
20 대	141 (100.0)	5 (3.5)	24 (17.0)	56 (39.7)	47 (33.3)	9 (6.4)	54.319*** (.000)	3.22 ^a (.927)	6.733*** (.000)
30 대	173 (100.0)	6 (3.5)	30 (17.3)	60 (34.7)	65 (37.6)	12 (6.9)		3.27 ^a (.947)	
40 대	208 (100.0)	2 (1.0)	18 (8.7)	62 (29.8)	92 (44.2)	34 (16.3)		3.66 ^b (.886)	
50 대	169 (100.0)	11 (6.5)	28 (16.6)	59 (34.9)	46 (27.2)	25 (14.8)		3.27 ^a (1.106)	
60 대	94 (100.0)	12 [#] (12.8)	14 (14.9)	22 (23.4)	35 (37.2)	11 (11.7)		3.20 ^a (1.214)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4.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Post-hoc (Scheffe) a < b

-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은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 전망 점수보다 다소 높음(3.48점)
- 학교생활 성평등에 있어서도 남성의 전망(3.54점)이 여성(3.42점)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같았으며, 이러한 남녀 차이는 t-test 결과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었음

-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성별과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 예측 점수 분포가 통계적으로 연관성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3]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 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 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 질것	매우 평등해 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체	1593 (100.0)	58 (3.6)	193 (12.1)	537 (33.7)	542 (34.0)	263 (16.5)		3.48 (1.020)	
남성	808 (100.0)	28 (3.5)	97 (12.0)	251 (31.1)	278 (34.4)	154 (19.1)	10.087* (.039)	3.54 (1.039)	2.362* (.018)
여성	785 (100.0)	30 (3.8)	96 (12.2)	286 (36.4)	264 (33.6)	109 (13.9)		3.42 (.998)	

*p<.05, **p<.01, ***p<.001

- 여성 응답자만을 별도 추출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를 5점 척도로 예상해 점수를 부여하게 한 결과, 앞서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과 마찬가지로 40대 여성의 예측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3.66점)
- 60대 여성이 부여한 전망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3.13점), 그 다음으로는 20대 여성의 전망 점수가 낮았음(3.29점)
- 연령 집단별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한 결과, 여성 내 연령대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변화 전망 응답의 차이는 의미 있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여성의 응답패턴이 다르고, 20대와 60대가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4] 여성이 생각하는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 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 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 질것	매우 평등해 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F (p)
전 체	785 (100.0)	30 (3.8)	96 (12.2)	286 (36.4)	264 (33.6)	109 (13.9)		3.42 .998)	
20 대	141 (100.0)	6 (4.3)	16 (11.3)	62 (44.0)	45 (31.9)	12 (8.5)	38.652** (.001)	3.29 ^a .930)	6.081*** (.000)
30 대	173 (100.0)	2 (1.2)	23 (13.3)	64 (37.0)	62 (35.8)	22 (12.7)		3.46 ^{ab} .918)	
40 대	208 (100.0)	5 (2.4)	18 (8.7)	60 (28.8)	85 (40.9)	40 (19.2)		3.66 ^b .965)	
50 대	169 (100.0)	12 (7.1)	21 (12.4)	61 (36.1)	48 (28.4)	27 (16.0)		3.34 ^{ab} 1.107)	
60 대	94 (100.0)	5 [#] (5.3)	18 (19.1)	39 (41.5)	24 (25.5)	8 (8.5)		3.13 ^a .997)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4.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Post-hoc (Scheffe) a < b

-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응답을 살펴보면, 평균 3.29점으로 앞서 살펴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 전망 점수보다 낮게 나타남
- 특히 여성의 전망 점수가 3.16점으로 가정생활 3.36점, 학교생활 3.42점에 비해 크게 낮았음
- 아래 [표 3-25]에 나타나 있듯이, 남성의 전망이 여성보다 긍정적인데, 남성과 여성 간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점수의 차이는 t-test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카이제곱검정 결과도 성별과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한 변화에 대한 전망 견해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5]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 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 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 질것	매우 평등해 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 체	1593 (100.0)	75 (4.7)	254 (15.9)	595 (37.4)	466 (29.3)	203 (12.7)		3.29 (1.032)	
남 성	808 (100.0)	34 (4.2)	104 (12.9)	287 (35.5)	252 (31.2)	131 (16.2)	29.646*** (.000)	3.42 (1.039)	5.124*** (.000)
여 성	785 (100.0)	41 (5.2)	150 (19.1)	308 (39.2)	214 (27.3)	72 (9.2)		3.16 (1.007)	

* $p < .05$, ** $p < .01$, *** $p < .001$

- 여성 응답자만을 별도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구분하고, 직장생활에서 향후 성평등한 변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예상하게 한 결과, 특히 20대 응답자의 전망 점수가 2.83점으로 크게 낮았음
- 30대 여성의 전망 점수도 낮았는데(3.14점), 40대 여성의 전망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35점), 연령대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대 여성의 응답 패턴이 다른 연령 집단과 다르고, 4,5,60대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검정(Scheffe-method)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

[표 3-26] 여성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 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 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 질것	매우 평등해 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F (p)
전 체	785 (100.0)	41 (5.2)	150 (19.1)	308 (39.2)	214 (27.3)	72 (9.2)		3.16 (1.007)	
20 대	141 (100.0)	8 (5.7)	44 (31.2)	53 (37.6)	36 (25.5)	0 (0.0)	41.809*** (.000)	2.83 ^a (.878)	5.935*** (.000)
30 대	173 (100.0)	9 (5.2)	38 (22.0)	61 (35.3)	50 (28.9)	15 (8.7)		3.14 ^{ab} (1.025)	
40 대	208 (100.0)	8 (3.8)	24 (11.5)	88 (42.3)	63 (30.3)	25 (12.0)		3.35 ^b (.967)	
50 대	169 (100.0)	11 (6.5)	29 (17.2)	66 (39.1)	40 (23.7)	23 (13.6)		3.21 ^b (1.085)	
60 대	94 (100.0)	5 [#] (5.3)	15 (16.0)	40 (42.6)	25 (26.6)	9 (9.6)		3.19 ^b (.998)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4.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Post-hoc (Scheffe) a < b

-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 성평등한 변화를 전망한 결과, 가정, 학교, 직장 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한 변화 전망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도출됨 (3.27점)
- 여성은 3.12점을 부여해,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은 전망 점수를 보였으며, 남성의 긍정적 전망과 여성의 전망 점수 간 차이는 t-test 결과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카이제곱검정 결과도 성별과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성희롱과 성폭력, 외모비교에서 성비하 행동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이 10년 후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란 물음에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크게 회의적이었음

[표 3-27]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 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 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 질것	매우 평등해 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t (p)
전체	1593 (100.0)	77 (4.8)	278 (17.5)	575 (36.1)	461 (28.9)	202 (12.7)		3.27 (1.045)	
남성	808 (100.0)	29 (3.6)	117 (14.5)	280 (34.7)	254 (31.4)	128 (15.8)	30.945*** (.000)	3.41 (1.032)	5.587*** (.000)
여성	785 (100.0)	48 (6.1)	161 (20.5)	295 (37.6)	207 (26.4)	74 (9.4)		3.12 (1.037)	

* $p < .05$, ** $p < .01$, *** $p < .001$

○ 여성 내 연령 집단별로 응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대 여성의 전망 점수가 2.8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 여성이 3.09점을 부여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성평등 전망을 보여주었음

[표 3-28] 여성의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평등 해지지 않을것	대체로 평등 해지지 않을것	현상태 유지할 것	대체로 평등해 질것	매우 평등해 질것	χ^2 (p)	평균 (표준 편차)	F (p)
전체	785 (100.0)	48 (6.1)	161 (20.5)	295 (37.6)	207 (26.4)	74 (9.4)		3.12 (1.037)	
20대	141 (100.0)	13 (9.2)	36 (25.5)	57 (40.4)	33 (23.4)	2 (1.4)	53.903*** (.000)	2.82 ^a (.943)	5.258*** (.000)
30대	173 (100.0)	6 (3.5)	48 (27.7)	58 (33.5)	46 (26.6)	15 (8.7)		3.09 ^{ab} (1.013)	
40대	208 (100.0)	4 (1.9)	32 (15.4)	89 (42.8)	57 (27.4)	26 (12.5)		3.33 ^b (.948)	
50대	169 (100.0)	18 (10.7)	34 (20.1)	46 (27.2)	50 (29.6)	21 (12.4)		3.13 ^{ab} (1.188)	
60대	94 (100.0)	7 (7.4)	11 (11.7)	45 (47.9)	21 (22.3)	10 (10.6)		3.17 ^{ab} (1.023)	

* $p < .05$, ** $p < .01$, *** $p < .001$

Post-hoc (Scheffe) a < b

- 카이제곱검정 결과는 연령과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냄
- 40대 여성의 전망이 이 항목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33점), 연령집단별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응답 패턴이 각기 다른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줌

3.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와 수요

1) 성평등 정책의 효과

-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 사업 중 대전시가 성평등해지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순위에 따라 고르게 한 결과, 전체 1,593명의 응답자 중 25.0%는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것(칼퇴근하는 날, 패밀리데이 등)이 효과가 좋다고 평가했음
-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문화의 개선은 남성의 27.4%, 여성의 22.7%가 효과가 좋다고 1순위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평등 인식 교육’이 남성 20.2%, 여성 21.3%로 가장 많이 선택됨
-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과 성평등 정책 중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고른 결과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순위 선정 결과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부표1-7] 참조)

[표 3-29]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1순위)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직장문화 개선제도	성평등인 식교육	부모/ 가족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상담/ 알선	임신출산 관련지원	저소득/ 다양한 가족지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폭력 피해자 지원	χ^2 (p)
전체	1593 (100.0)	399 (25.0)	330 (20.7)	173 (10.9)	164 (10.3)	138 (8.7)	108 (6.8)	78 (4.9)	75 (4.7)	59 (3.7)	53 (3.3)	16 (1.0)	10.719 (.380)
남성	808 (100.0)	221 (27.4)	163 (20.2)	90 (11.1)	77 (9.5)	66 (8.2)	56 (6.9)	41 (5.1)	34 (4.2)	30 (3.7)	20 (2.5)	10 (1.2)	
여성	785 (100.0)	178 (22.7)	167 (21.3)	83 (10.6)	87 (11.1)	72 (9.2)	52 (6.6)	37 (4.7)	41 (5.2)	29 (3.7)	33 (4.2)	6 (0.8)	

주.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 여성 응답자를 별도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나누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성평등 정책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여성의 연령과 성평등 정책의 효과에 대한 생각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음([표 3-30]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참조)
- 20~40대는 ‘칼퇴근’이나 ‘패밀리데이’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생활 간 균형을 돕는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효과가 좋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5,60대는 ‘성평등 인식 교육’을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 사업 1순위로 꼽았음
- 20대 여성은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에 보다 주목하고 (13.5%), 30대 여성은 ‘아이돌봄 서비스(18.5%)’를, 50대 여성은 ‘부모와 가족 대상 교육’이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고 선택한 특징을 보임
- 여성들의 2순위 선택도 연령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1]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참조)
- 20대 여성이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15.6%)’가 성평등한 대전시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데 비해, 30대는 ‘아이돌봄 서비스(19.3%)’를 가장 많이 선택함
- 40대는 효과가 좋은 성평등 사업 2순위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서비스 (14.6%)’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50대는 ‘성평등 인식 교육(15.2%)’ 못지않게 ‘일자리 상담과 알선 서비스(14.5%)’를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표 3-30] 여성이 생각하는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1순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직장문화 개선제도	성평등인식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가족 교육	성희롱/성폭력에 방교육	직업훈련/창업지원	임신출산 관련지원	일자리 상담/알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저소득/다양한 가족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	χ^2 (p)
전체	785 (100.0)	178 (22.7)	167 (21.3)	87 (11.1)	83 (10.6)	72 (9.2)	52 (6.6)	41 (5.2)	37 (4.7)	33 (4.2)	29 (3.7)	6 (0.8)	104.923*** (.000)
20대	141 (100.0)	45 (31.9)	24 (17.0)	12 (8.5)	9 (6.4)	19 (13.5)	8 (5.7)	9 (6.4)	4 (2.8)	4 (2.8)	4 (2.8)	3 [#] (2.1)	
30대	173 (100.0)	51 (29.5)	26 (15.0)	32 (18.5)	14 (8.1)	5 (2.9)	14 (8.1)	14 (8.1)	5 (2.9)	8 (4.6)	4 (2.3)	0 [#] (0.0)	
40대	208 (100.0)	52 (25.0)	36 (17.3)	23 (11.1)	24 (11.5)	20 (9.6)	15 (7.2)	6 (2.9)	8 (3.8)	10 (4.8)	12 (5.8)	2 [#] (1.0)	
50대	169 (100.0)	17 (10.1)	53 (31.4)	14 (8.3)	29 (17.2)	17 (10.1)	8 (4.7)	8 (4.7)	10 (5.9)	7 (4.1)	6 (3.6)	0 [#] (0.0)	
60대	94 (100.0)	13 (13.8)	28 (29.8)	6 (6.4)	7 (7.4)	11 (11.7)	7 (7.4)	4 [#] (4.3)	10 [#] (10.6)	4 [#] (4.3)	3 [#] (3.2)	1 [#] (1.1)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16.4%)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주. 항목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표 3-31] 여성이 생각하는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2순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직장문화 개선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부모/가족 교육	성평등인 식교육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일자리 상담/알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저소득/ 다양한 가족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	χ^2 (p)
전체	774 (100.0)	89 (11.5)	86 (11.1)	86 (11.1)	84 (10.9)	75 (9.7)	74 (9.6)	73 (9.4)	71 (9.2)	56 (7.2)	51 (6.6)	29 (3.7)	102.364*** (.000)
20대	141 (100.0)	18 (12.8)	14 (9.9)	22 (15.6)	17 (12.1)	7 (5.0)	11 (7.8)	11 (7.8)	6 (4.3)	14 (9.9)	9 (6.4)	12 (8.5)	
30대	171 (100.0)	22 (12.9)	33 (19.3)	24 (14.0)	17 (9.9)	21 (12.3)	14 (8.2)	13 (7.6)	7 (4.1)	8 (4.7)	10 (5.8)	2 (1.2)	
40대	206 (100.0)	27 (13.1)	21 (10.2)	22 (10.7)	30 (14.6)	23 (11.2)	16 (7.8)	22 (10.7)	19 (9.2)	13 (6.3)	11 (5.3)	2 (1.0)	
50대	165 (100.0)	14 (8.5)	12 (7.3)	9 (5.5)	8 (4.8)	22 (13.3)	25 (15.2)	15 (9.1)	24 (14.5)	16 (9.7)	14 (8.5)	6 (3.6)	
60대	91 (100.0)	8 (8.8)	6 (6.6)	9 (9.9)	12 (13.2)	2 (2.2)	8 (8.8)	12 (13.2)	15 (16.5)	5 (5.5)	7 (7.7)	7 [#] (7.7)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1.8%)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주. 항목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2)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 대전시가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가족기능강화를 목적으로 한 시설들이 현 거주지에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 시설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 결과는 다음 [표 3-32]와 같음
- 전체 1,593명의 응답자 중 24.5%는 현 거주지 주변에 ‘가족여가 활동 시설’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선택함
- 그 다음으로 주거지 인근에 필요한 여성가족시설로는 ‘직업교육과 취업상담기관(13.7%)’이 많이 선택되었으며, 여성가족원이나 시민대학 등과 같은 시민대상 ‘교양교육기관’도 응답자의 13.3%가 필요하다고 답함
- 카이제곱검정 결과, 여성과 남성 간 필요한 시설 선택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 남성들은 ‘건강과 의료지원 기관’을, 여성들은 ‘교양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보다 강하게 나타남
-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족여가활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소 낮은 대신 ‘어린이 도서관’이나 ‘여성단체 및 소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3-32]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가족여가 활동시설	직업교육/ 취업상담 기관	교양교육 기관	건강/의료 지원기관	아이돌봄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가족교육/ 상담시설	어린이 도서관	여성단체/ 소모임 공간	성평등 교육전문 기관	자녀 사교육 시설	폭력피해 여성지원 시설	기타	χ^2 (p)
전체	1593 (100.0)	390 (24.5)	219 (13.7)	212 (13.3)	193 (12.1)	152 (9.5)	135 (8.5)	101 (6.3)	54 (3.4)	51 (3.2)	39 (2.4)	23 (1.4)	23 (1.4)	1 (0.1)	25.732* (.012)
남성	808 (100.0)	221 (27.4)	114 (14.1)	87 (10.8)	106 (13.1)	77 (9.5)	69 (8.5)	50 (6.2)	23 (2.8)	17 (2.1)	22 (2.7)	9 (1.1)	13 (1.6)	0# (0.0)	
여성	785 (100.0)	169 (21.5)	105 (13.4)	125 (15.9)	87 (11.1)	75 (9.6)	66 (8.4)	51 (6.5)	31 (3.9)	34 (4.3)	17 (2.2)	14 (1.8)	10 (1.3)	1# (0.1)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7.7%)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주.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기타 제외)

- 여성 응답자만을 별도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나누고 주거지 인근에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게 한 결과, 연령과 필요 시설 수요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나타남([표 3-33]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참조)
- 20대 여성은 ‘직업교육과 취업상담기관(16.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른 연령대와 달리 ‘가족교육 및 상담시설(10.6%)’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30대 여성은 ‘가족여가활동시설(22.0%)’ 만큼이나 ‘아이돌봄시설 (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0대 여성은 ‘가족여가 활동시설(29.3%)’을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 50대 여성은 ‘가족여가활동시설(17.2%)’ ‘교양교육기관(19.5%)’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기관(17.8%)’ ‘건강 및 의료지원기관 (14.8%)’에 대한 수요가 고르게 분포돼 있음
- 60대 여성은 ‘가족여가활동시설(24.5%)’ 못지않게 ‘건강 및 의료 지원 기관(22.3%)’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임

[표 3-33]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가족여가 활동시설	교양교육 기관	직업교육/ 취업상담 기관	건강/ 의료지원 기관	아이돌봄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가족교육/ 상담시설	여성단체/ 소모임 공간	어린이 도서관	성평등 교육 전문기관	자녀 사교육 시설	폭력피해 여성지원 시설	기타	χ^2 (p)
전체	785 (100.0)	169 (21.5)	125 (15.9)	105 (13.4)	87 (11.1)	75 (9.6)	66 (8.4)	51 (6.5)	34 (4.3)	31 (3.9)	17 (2.2)	14 (1.8)	10 (1.3)	1 (0.1)	163.231*** (.000)
20대	141 (100.0)	18 (12.8)	21 (14.9)	23 (16.3)	18 (12.8)	10 (7.1)	13 (9.2)	15 (10.6)	5 (3.5)	4 (2.8)	5 [#] (3.5)	1 [#] (0.7)	8 [#] (5.7)	0 [#] (0.0)	
30대	173 (100.0)	38 (22.0)	20 (11.6)	20 (11.6)	8 (4.6)	34 (19.7)	27 (15.6)	7 (4.0)	3 (1.7)	11 (6.4)	3 [#] (1.7)	1 [#] (0.6)	0 [#] (0.0)	1 [#] (0.6)	
40대	208 (100.0)	61 (29.3)	40 (19.2)	26 (12.5)	15 (7.2)	15 (7.2)	12 (5.8)	14 (6.7)	5 (2.4)	13 (6.3)	1 [#] (0.5)	6 [#] (2.9)	0 [#] (0.0)	0 [#] (0.0)	
50대	169 (100.0)	29 (17.2)	33 (19.5)	30 (17.8)	25 (14.8)	10 (5.9)	4 (2.4)	10 (5.9)	14 (8.3)	2 (1.2)	6 [#] (3.6)	4 [#] (2.4)	2 [#] (1.2)	0 [#] (0.0)	
60대	94 (100.0)	23 (24.5)	11 (11.7)	6 (6.4)	21 (22.3)	6 (6.4)	10 (10.6)	5 (5.3)	7 [#] (7.4)	1 [#] (1.1)	2 [#] (2.1)	2 [#] (2.1)	0 [#] (0.0)	0 [#] (0.0)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33.8%)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본 표의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5%초과되었으므로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제시함

주. 항목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기타 제외)

3) 성평등 정책 목표와 필요한 전략

-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성평등 정책 목표를 경제활동, 대표성 향상,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돌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주요 영역으로 하여 세부 목표들을 도출함
-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다섯 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제시하여 목표를 선정하도록 함
-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시민에게 물은 결과, 전체 1,593명 응답자의 46.0%는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남성과 여성 간 정책 목표 선정 경향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을 가장 많이 정책 목표로 선택한 것은 같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이를 적게 선택했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20.0%)’를 남성보다 더 많이 선택함
- ‘돌봄서비스의 개선’도 여성의 13.6%가 선택한데 비해 남성은 응답자의 17.2%가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정책 목표로 선택한 차이를 보임
- ‘여성의 대표성 향상’ 목표를 여성의 15.7%가 선택한데 비해 남성은 12.0%의 응답자만이 선택해 차이를 보여줌

[표 3-34]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일과가족- 생활의균형	성별 임금격차 해소	아동 돌봄서비스 질적개선	여성의 대표성 향상	젠더폭력 으로부터의 안전	χ^2 (p)
전체	1593 (100.0)	733 (46.0)	310 (19.5)	246 (15.4)	220 (13.8)	84 (5.3)	
남성	808 (100.0)	384 (47.5)	153 (18.9)	139 (17.2)	97 (12.0)	35 (4.3)	10.962* (.027)
여성	785 (100.0)	349 (44.5)	157 (20.0)	107 (13.6)	123 (15.7)	49 (6.2)	

* $p < .05$, ** $p < .01$, *** $p < .001$

주.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 여성 응답자만을 별도 추출하여 연령대별 응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목표 선택 경향 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표 3-35]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참조)
- 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목표 선택이 달라지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20대 여성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24.1%)’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 3,4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55.5%와 49.0%)’을 목표로 선정했으며,
- 50대 여성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23.7%)’와 ‘여성의 대표성 향상(21.3%)’도 많이 선택함
- 60대 여성은 시간제 보육이나 방과후 보육 등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25.5%)’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표 3-35]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과가족- 생활의균형	성별임금 격차해소	여성의 대표성향상	아동돌봄 서비스 질적 개선	젠더폭력 으로부터의 안전	χ^2 (p)
전체	785 (100.0)	349 (44.5)	157 (20.0)	123 (15.7)	107 (13.6)	49 (6.2)	52.773*** (.000)
20대	141 (100.0)	56 (39.7)	34 (24.1)	18 (12.8)	16 (11.3)	17 (12.1)	
30대	173 (100.0)	96 (55.5)	28 (16.2)	14 (8.1)	28 (16.2)	7 (4.0)	
40대	208 (100.0)	102 (49.0)	40 (19.2)	36 (17.3)	21 (10.1)	9 (4.3)	
50대	169 (100.0)	66 (39.1)	40 (23.7)	36 (21.3)	18 (10.7)	9 (5.3)	
60대	94 (100.0)	29 (30.9)	15 (16.0)	19 (20.2)	24 (25.5)	7 (7.4)	

* $p < .05$, ** $p < .01$, *** $p < .001$

주. 항목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 여성이 거주하는 기초자치구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목표 선택이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카이제곱검정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음([표 3-36]참조)
- 모든 자치구 여성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가장 많이 선정한 점은 유사하나, 동구 여성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31.9%)’를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못지않게 많이 선택한 특징이 나타남
- 중구 여성은 ‘돌봄(11.7%)’과 ‘임금격차 해소(17.5%)’, ‘여성의 대표성 향상(16.1%)’을 고르게 선택했으며,
- 서구 여성도 고른 선정을 한 것은 중구와 유사하나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3.8%)’ 선정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임
- 유성구는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8.9%)’ 목표 선정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고,

- 대덕구는 ‘여성의 대표성 향상(9.2%)’ 목표 선정 비율이 다른 자치구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3-36]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 자치구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여성의 대표성향상	일과가족-생활의균형	성별임금 격차해소	아동돌봄 서비스 질적 개선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χ^2 (p)
전체	785 (100.0)	123 (15.7)	349 (44.5)	157 (20.0)	107 (13.6)	49 (6.2)	26.397* (.049)
동구	116 (100.0)	21 (18.1)	40 (34.5)	37 (31.9)	10 (8.6)	8 (6.9)	
중구	137 (100.0)	22 (16.1)	66 (48.2)	24 (17.5)	16 (11.7)	9 (6.6)	
서구	265 (100.0)	43 (16.2)	121 (45.7)	46 (17.4)	45 (17.0)	10 (3.8)	
유성구	180 (100.0)	29 (16.1)	79 (43.9)	31 (17.2)	25 (13.9)	16 (8.9)	
대덕구	87 (100.0)	8 (9.2)	43 (49.4)	19 (21.8)	11 (12.6)	6 (6.9)	

* $p < .05$, ** $p < .01$, *** $p < .001$

* 항목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전 시민들은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로 육아휴직 확대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가장 많이 선택했음
- 시민이 원하는 성평등 정책 사업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 1,593명의 응답자 중 29.6%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세부적인 사업 선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간에는 견해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음

- 남성은 학교나 직장에서 성평등 인식을 교육하는 ‘성평등교육 강화(17.0%)’와 ‘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청에 성평등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8.7%)’을 1순위로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했음
- 여성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6.4%)’을 그리 많이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여성 고용 확대(11.3%)’를 남성 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함
- 남성은 ‘위기 또는 취약 가족-한부모·조손·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5.4%)’이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개선(4.3%)’ 정책도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한 경향을 보임
- 2순위 선정 결과도 남성과 여성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이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정책은 ‘여성 고용의 확대(14.0%)’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12.7%)’과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해소(12.6%)’가 많이 선택됨
- 여성은 2순위 정책으로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3.5%)’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 찾아가는 아이돌봄이나 온종일 학교돌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공(12.9%)’을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 일과 가정생활 간 조화로운 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평등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남성은 성평등 교육을 통한 인식의 확산이나 전문가를 통한 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 특히 2순위 결정 결과는 남성들이 성평등을 일, 직장 등 노동과 관련 지어 우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음
- 여성들은 고용의 확대가 중요한 해결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일과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사이에서의 갈등이 강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개선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원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

[표 3-37]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1순위)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가정 양립지원	성평등 교육강화	여성의 대표성향상	여성고용 확대	임신·출산 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해소	성평등 위원회설치/ 전문가배치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확대	위기/취약 가족지원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개선	여성/약자 대상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χ^2 (p)
전체	1593 (100.0)	471 (29.6)	258 (16.2)	176 (11.0)	142 (8.9)	125 (7.8)	120 (7.5)	86 (5.4)	65 (4.1)	56 (3.5)	56 (3.5)	38 (2.4)	26.784** (.003)
남성	808 (100.0)	229 (28.3)	137 (17.0)	83 (10.3)	53 (6.6)	65 (8.0)	70 (8.7)	45 (5.6)	44 (5.4)	30 (3.7)	35 (4.3)	17 (2.1)	
여성	785 (100.0)	242 (30.8)	121 (15.4)	93 (11.8)	89 (11.3)	60 (7.6)	50 (6.4)	41 (5.2)	21 (2.7)	26 (3.3)	21 (2.7)	21 (2.7)	

* $p < .05$, ** $p < .01$, *** $p < .001$

*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표 3-38]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2순위)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가정 양립지원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확대	여성고용 확대	성평등 교육강화	성평등 위원회설치/ 전문가배치	여성의 대표성향상	위기/취약 가족지원	여성/약자 대상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개선	χ^2 (p)
전체	783 (100.0)	111 (14.2)	106 (13.5)	99 (12.6)	83 (10.6)	81 (10.3)	59 (7.5)	53 (6.8)	52 (6.6)	51 (6.5)	50 (6.4)	38 (4.9)	23.917** (.008)
남성	762 (100.0)	97 (12.7)	94 (12.3)	96 (12.6)	58 (7.6)	107 (14.0)	68 (8.9)	30 (3.9)	82 (10.8)	44 (5.8)	46 (6.0)	40 (5.2)	
여성	1545 (100.0)	208 (13.5)	200 (12.9)	195 (12.6)	141 (9.1)	188 (12.2)	127 (8.2)	83 (5.4)	134 (8.7)	95 (6.1)	96 (6.2)	78 (5.0)	

* $p < .05$, ** $p < .01$, *** $p < .001$

*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 여성 응답자만을 별도 추출하여 연령대별로 나누고 연령대별로 성평등 정책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여성의 연령과 성평등 정책 사업에 대한 선택 결과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남(아래 [표 3-39]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참조)
- 3,40대 여성들의 상당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선택했음(30대 47.4%, 40대 39.4%)
- 20대 여성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25.5%)’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같으나, 그 비율이 3,40대에 비해 낮고, ‘성평등교육 강화(18.4%)’를 30대(8.1%)보다 크게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
- 50대 여성은 ‘성평등교육의 강화(20.7%)’를 제시된 정책 사업들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였으며,
- 60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14.9%)’ 선택 비율이 특히 높았음
- 2순위 선택 결과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연령과 성평등 정책 사업에 대한 선택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남
- ‘여성의 대표성 향상’은 특히 20대 여성들이 1순위에서는 많이 선택하지 않았다가 2순위로 13.5%가 선택한 특징을 보였고,
- ‘여성 고용의 확대’가 3,40대 여성에게서 1순위와 달리 많이 선택된 경향을 보였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2순위에서는 다소 떨어진데 비해 ‘직장 내 불이익 해소’와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특징을 보임

[표 3-39]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1순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가정 양립지원	성평등 교육강화	여성의 대표성향상	여성고용 확대	임신·출산 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해소	성평등 위원회설치/ 전문가배치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확대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위기/취약 가족지원	여성/약자 대상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개선	χ^2 (p)
전 체	785 (100.0)	242 (30.8)	121 (15.4)	93 (11.8)	89 (11.3)	60 (7.6)	50 (6.4)	41 (5.2)	26 (3.3)	21 (2.7)	21 (2.7)	21 (2.7)	
20 대	141 (100.0)	36 (25.5)	26 (18.4)	13 (9.2)	24 (17.0)	20 (14.2)	9 (6.4)	2 (1.4)	2 [#] (1.4)	2 [#] (1.4)	3 [#] (2.1)	4 [#] (2.8)	140.492*** (.000)
30 대	173 (100.0)	82 (47.4)	14 (8.1)	19 (11.0)	15 (8.7)	18 (10.4)	6 (3.5)	6 (3.5)	6 (3.5)	1 [#] (0.6)	1 [#] (0.6)	5 [#] (2.9)	
40 대	208 (100.0)	82 (39.4)	29 (13.9)	25 (12.0)	18 (8.7)	8 (3.8)	6 (2.9)	13 (6.3)	8 (3.8)	8 (3.8)	6 (2.9)	5 (2.4)	
50 대	169 (100.0)	23 (13.6)	35 (20.7)	27 (16.0)	28 (16.6)	9 (5.3)	18 (10.7)	6 (3.6)	5 (3.0)	5 [#] (3.0)	8 [#] (4.7)	5 [#] (3.0)	
60 대	94 (100.0)	19 (20.2)	17 (18.1)	9 (9.6)	4 (4.3)	5 (5.3)	11 (11.7)	14 [#] (14.9)	5 [#] (5.3)	5 [#] (5.3)	3 [#] (3.2)	2 [#] (2.1)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27.3%)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본 표의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5%초과되었으므로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제시함

주.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표 3-40]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2순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여성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해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여성의 대표성향상	성평등 교육강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확대	여성/약자 대상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위기/취약 가족지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개선	성평등 위원회설치/전문가배치	χ^2 (p)
전체	762 (100.0)	107 (14.0)	97 (12.7)	96 (12.6)	94 (12.3)	82 (10.8)	68 (8.9)	58 (7.6)	46 (6.0)	44 (5.8)	40 (5.2)	30 (3.9)	59.695* (.023)
20대	141 (100.0)	18 (12.8)	21 (14.9)	24 (17.0)	14 (9.9)	19 (13.5)	8 (5.7)	10 (7.1)	9 (6.4)	5 (3.5)	7 (5.0)	6 (4.3)	
30대	170 (100.0)	21 (12.4)	24 (14.1)	30 (17.6)	24 (14.1)	11 (6.5)	17 (10.0)	19 (11.2)	7 (4.1)	6 (3.5)	6 (3.5)	5 (2.9)	
40대	197 (100.0)	25 (12.7)	26 (13.2)	23 (11.7)	27 (13.7)	22 (11.2)	20 (10.2)	12 (6.1)	11 (5.6)	15 (7.6)	9 (4.6)	7 (3.6)	
50대	162 (100.0)	34 (21.0)	21 (13.0)	8 (4.9)	14 (8.6)	24 (14.8)	13 (8.0)	8 (4.9)	11 (6.8)	13 (8.0)	9 (5.6)	7 (4.3)	
60대	92 (100.0)	9 (9.8)	5 (5.4)	11 (12.0)	15 (16.3)	6 (6.5)	10 (10.9)	9 (9.8)	8 (8.7)	5 (5.4)	9 [#] (9.8)	5 [#] (5.4)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3.6%)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주.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4.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

1) 군집분석

-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하여 대전지역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평등 현황에 대한 인식 특성 그리고 성평등 정책 수요 대한 특성을 유형화하고자 함
- 군집분석을 통해 대전 여성의 거주 및 생활 특성, 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요구 차이 등이 어떻게 비슷한 여성들끼리 집단화되는지, 그리고 그 집단은 실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공간적으로 파악되는 여성의 삶과 성평등 현황을 제시해보고자 함
- 공간으로 드러나는 여성의 삶과 성평등 현황을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라 이름 짓고, 각 클러스터의 특징에 부합하는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시민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단계 군집분석(Two-Step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자세한 분석방법은 아래 [표 3-41]과 같음

[표 3-41]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 도출을 위한 군집분석 내용

구분	분석방법	내용
군집 분석	2단계 군집분석 (Two-Step Cluster Analysis)	- 군집분석에 사용될 변수가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혼합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형화 방법
거리 측정	로그-우도 (log-likelihood)	- 자료가 범주형을 포함하는 경우 로그-우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허명희, 2017) - 로그-우도 측도 사용 시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계산되며 이 때 연속형 변수의 경우 정규분포, 범주형 변수의 경우 다항분포로 계산된다고 가정하며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가정함(Norusis, 2003)
군집 기준	BIC (Bayesian inference criterion)	- 최적 군집수 산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연구자가 사전적으로 군집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음(Huang & Han, 2008; Lepp et al., 2015; Okazaki, 2006; 김영두, 2014 재인용) - Norusis(2003)에 의하면 Schwarz의 BIC 기준에 의해 군집수가 결정될 경우 가장 낮은 BIC 값을 갖는 군집이 가장 좋은 군집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BIC의 변화량과 군집거리의 변화정도가 최적의 군집수 결정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윤우식 외, 2009)

- 본 분석에서는 군집(Cluster) 수 산출을 위해 BIC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5개의 유형이 도출됨
- 통계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18을 이용함
-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는 으로 구성하였고 이외에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가함
- 군집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모두 17개로 아래 [표 3-42]와 같음

[표 3-42] 군집분석에 사용된 성평등 현황 및 정책수요 변수

구분	변수	변수 유형	변수설명
I. 성평등 현황 및 정책수요 주요 변수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불안정성/취업문제 자기개발시간부족 과다한 업무/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돌봄문제 저소득/부채등경제문제 일-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신체건강문제 노후대비 여가시간부족 경력단절 심리적불안정/우울 가족과의갈등/불화 안전문제 사회적관계형성유지 어려움 기타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경험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있음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경험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있음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경험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있음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경험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있음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문화개선제도 성평등인식교육 부모/가족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직업훈련/창업지원 일자리상담/알선 임신출산관련지원 저소득/다양한가족지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폭력피해자지원

구분	변수	변수 유형	변수설명
I. 성평등 현황 및 정책수요 주요 변수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여가활동시설 2. 직업교육/취업상담기관 3. 교양교육기관 4. 건강/의료지원기관 5. 아이돌봄시설 6. 국공립보육시설 7. 가족교육/상담시설 8. 어린이도서관 9. 여성단체/소모임공간 10. 성평등교육전문기관 11. 자녀사교육시설 12.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13. 기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과가족-생활의균형 2. 성별임금격차해소 3. 아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4. 여성의대표성향상 5. 젠더폭력으로부터의안전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범주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가정양립지원 2. 성평등교육강화 3. 여성의대표성향상 4. 여성고용확대 5. 직장 내불이익해소 6. 성평등위원회설치/전문가배치 7.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8. 위기/취약가족지원 9. 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 10.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개선 11. 여성/약자대상폭력예방/피해자지원

구분	변수	변수 유형	변수 설명
II. 일반적 특성	연령대	범주형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최종학력	범주형	1. 초등학교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교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이상
	혼인상태	범주형	1. 기혼 2. 사별/이혼/별거 3. 혼인한적 없음
	가구유형	범주형	1. 혼자 거주 2. 배우자와 동거 3.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4. 자녀와 동거 5. 손자녀와 동거 6. 부모와 동거
	자녀수	범주형	1. 없음 2. 1명 3. 2명 4. 3명 이상
	경제활동상태	범주형	1. 정규상근 2. 비정규상근 3. 파트타임/일용직 4. 자영업 5. 일하지 않음
	월평균 가구 소득	범주형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
- 군집분석에 사용된 최종 분석 대상자는 785명임
-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43]과 같음

[표 3-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군집분석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전체		785	100.0	없음		236	30.1
연령대	20대	141	18.0	자녀수	1명	129	16.4
	30대	173	22.0		2명	342	43.6
	40대	208	26.5		3명 이상	78	9.9
	50대	169	21.5		경제활동상태	정규상근	378
	60대	94	12.0	비정규상근		118	15.0
	최종학력	초등학교 이하	12	1.5	파트타임/일용직	65	8.3
중학교 졸업		20	2.5	자영업	46	5.9	
고등학교 졸업		231	29.4	일하지 않음	178	22.7	
전문대학 졸업		121	15.4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2	6.6
4년제 대학교 졸업		317	40.4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7.3
대학원 졸업 이상		84	10.7		200~300만원 미만	154	19.6
혼인상태	기혼	538	68.5		300~400만원 미만	142	18.1
	사별/이혼/별거	52	6.6		400~500만원 미만	113	14.4
	혼인한적 없음	195	24.8		500~600만원 미만	133	16.9
	가구유형	혼자 거주	109	13.9	600만원 이상	134	17.1
배우자와 동거		150	19.1	거주지역	동구	116	14.8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359	45.7		중구	137	17.5
자녀와 동거		37	4.7		서구	265	33.8
손자녀와 동거		2	.3		유성구	180	22.9
부모와 동거		118	15.0		대덕구	87	11.1
기타		10	1.3				

- 연령대는 40대가 208명으로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이 여성의 40.4%를 차지하고 있음

- 혼인상태는 기혼이 68.5%로 가장 많았고 가구(거주)유형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는 2명이 43.6%로 가장 많았음
- 경제활동상태는 정규상근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300만원 사이가 19.6%로 많았음
- 거주 자치구는 서구가 33.8%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22.9%, 중구 17.5%, 동구 14.8%, 대덕구 11.1%순이었음
- 본 분석은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평가 결과를 공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본 분석 대상이 된 여성의 주거지, 삶의 공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함
-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들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와 행정동을 기입하였으며, 79개 행정동으로 분산된 응답자 빈도를 고려해 행정동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공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수립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 계획'에 제시된 중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자 함
- 문경원·정경석(2014)은 대전지역이라는 공간을 77개 행정동과 5개 자치구 그리고 18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별 사회문화적,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여 생활권 간 균형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음
- 본 연구도 79개 행정동을 18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각 생활권에 있는 여성들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평가, 요구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군집분석을 위한 중생활권 설정 결과는 다음 [표 3-44]와 같음

[표 3-44] 군집분석을 위한 중생활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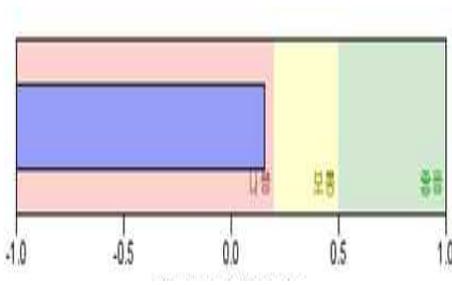
차치구	생활권	행정동	특성
동구	중앙	중앙동, 삼성동, 자양동, 대동, 신인동	원도심 핵
	용전	용전동, 가양1·2동, 성남동, 흥도동	용전 생활권
	가오·효동	효동, 판암1·2동, 용운동, 산내동, 대청동	가오 지역거점, 판암·낭월 생활권
중구	은행·선화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원도심 핵
	대흥	대흥동,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문창동	원도심 핵
	문화	문화1·2동, 유천1·2동, 태평1·2동, 오류동	오류 지역거점, 유천 생활권
중구+서구	산성	산성동, 복수동, 정립동	
서구	둔산	둔산1·2·3동	둔산 핵
	월평	월평2·3동, 만년동	둔산 핵
	괴정·용문	괴정동,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용문 지역거점
	도마	도마1·2동, 변동, 가장동, 내동	도마 생활권, 내변동 생활권
서구+유성구	진잠·관저	관저1·2동, 진잠동, 가수원동, 기성동	진잠 광역거점, 관저 생활권
유성구	온천	온천1·2동, 월평1동, 원신흥동	유성 광역거점
	노은	노은1·2·3동, 신성동	노은 지역거점, 도룡 생활권
	관평	관평동, 구죽동, 전민동	관평 지역거점, 신동 생활권
대덕구	신탄진	신탄진동, 덕암동, 석봉동, 목상동	신탄진 부도심
	오정·연축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오정 생활권, 연축 생활권
	중리·송촌	송촌동, 중리동, 법1·2동, 비래동	중리 지역거점

출처: 문경원·정경석(2014)의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내용을 재정리
 주. 2014년 당시 없었던 행정동인 원신흥동과 노은3동은 각각 '온천 생활권'과 '노은 생활권'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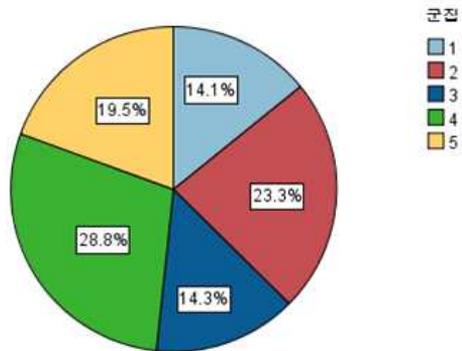
2) 군집의 유형과 특성

(1) 군집의 유형

- BIC(Bayesian inference criterion)에 기초하여 최적 군집 수를 도출한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됐음
- 군집 구조의 품질은 아래 [그림 3-1]과 같으며, 23.3%를 차지하는 군집부터 14.1%를 차지하는 군집까지 5개의 군집 유형이 도출됨



[그림 3-1] 군집 품질



[그림 3-2] 군집 크기

- 군집의 기준으로 사용된 변수의 변별력 혹은 예측력(predictor importance=1)은 자녀수 1.00, 혼인상태 .97, 연령대 .91, 가구유형 .86,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76,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75,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74,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68,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29, 최종학력 .27, 경제활동상태 .20,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13, 월평균 가구소득 .12,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11,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11,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08, 생활권 .01 순으로 나타남
- 도출된 다섯 개 군집의 유형 및 특성을 군집 크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45]와 같음

[표 3-45] 군집의 유형화

(단위 : %)

	군집 4	군집 2	군집 5	군집 3	군집 1
크기	28.8 (N:226)	23.3 (N:183)	19.5 (N:153)	14.3 (N:112)	14.1 (N:111)
자녀수	2명 (63.3)	2명 (57.9)	2명 (58.2)	없음 (95.5)	없음 (98.2)
혼인상태	기혼 (96.9)	기혼 (85.8)	기혼 (88.9)	혼인한적 없음 (86.6)	혼인한적 없음 (86.5)
연령대	40대 (41.6)	50대 (35.0)	50대 (39.2)	20대 (55.4)	20대 (67.6)
가구유형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80.1)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55.2)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50.3)	부모와 동거 (55.2)	부모와 동거 (47.7)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있음 (86.3)	없음 (92.3)	있음 (96.7)	있음 (88.4)	없음 (88.3)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있음 (70.4)	없음 (97.8)	있음 (93.5)	있음 (91.1)	없음 (98.2)
사회차별 경험여부	있음 (88.9)	없음 (84.7)	있음 (99.3)	있음 (96.4)	없음 (81.1)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있음 (81.9)	없음 (80.9)	있음 (95.4)	있음 (90.2)	없음 (98.2)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가족돌봄문제 (28.3)	신체건강문제 (17.5)	고용불안정성/ 취업문제 (26.8)	고용불안정성/ 취업문제 (24.1)	고용불안정성/ 취업문제 (33.3)
최종학력	4년제 대졸 (54.4)	고졸 (41.0)	고졸 (38.6)	4년제 대졸 (53.6)	고졸 (45.0)
경제활동상태	정규상근 (73.9)	정규상근 (38.3)	비정규상근 (32.0)	정규상근 (59.8)	정규상근 (45.0)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일-가정양립 지원 (53.1)	일-가정양립 지원 (18.0)	일-가정양립 지원 (23.5)	일-가정양립 지원 (21.4)	일-가정양립 지원 (26.1)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이상 (29.2)	300만원대 (21.9)	300만원대 (21.6)	200만원대 (32.1)	200만원대 (30.6)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직장문화개선 제도 (32.7)	직장문화개선 제도 (20.2)	성평등인식 교육 (41.2)	직장문화개선 제도 (33.0)	직장문화개선 제도 (24.3)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가족여가활동 시설 (27.0)	가족여가활동 시설 (28.4)	직업교육 /취업상담기관 (23.5)	가족여가활동 시설 (16.1)	교양교육기관 (21.6)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61.5)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41.5)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28.1)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37.5)	일과가족- 생활의 균형 (44.1)
생활권	노은 (12.4)	온천 (10.9)	가오효동 (10.5)	진잠관저 (9.8)	괴정용문 (10.8)

- 군집분석 결과 위와 같이 5개의 군집이 도출됐고, 나열된 순서는 군집의 크기(해당하는 여성 응답자의 수)에 근거함
- 크기가 가장 큰 군집은 226명이 속한 군집#4로, 자녀가 2명인 기혼 여성이 다수이며,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두 번째로 크기가 큰 군집은 여성 응답자의 23.3%가 속한 군집#2이며, 고졸의 비율이 높지만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많고 성차별적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지님
- 세 번째로 큰 군집은 여성 응답자의 19.5%가 속한 군집#5로, 50대 이상의 여성이 많고, 고졸이면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와 소득의 질이 좋지 않아 고용불안과 노후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음
-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군집#3과 군집#1에 많이 속해 있는데, 이들은 비혼이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취업을 한 2,30대 여성들(군집#3)은 성차별적 경험이 있다고 대다수 응답한 반면, 아직 대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2,30대 여성들(군집#1)은 성차별적 경험이 없다고 대다수 응답한 특징을 보임

(2) 군집#4: 고학력 정규직 30~40대 직장맘

- 이 군집에는 40대가 41.6%, 30대가 40.3%로 구성원의 대부분이 3,40대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54.4%), 대학원을 졸업(27.4%)한 고학력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은 결혼해 아이를 2명 둔 경우가 많고,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형태(80.1%)가 압도적으로 많음
- 이들 대부분은 정규상근직(73.9%)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도 500만원 이상이 54.9%에 달하는 고소득 집단이라 할 수 있음
- 이 군집에 속하는 여성들은 ‘육아를 포함한 가족 돌봄의 문제(28.3%)’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21.7%)’을 최근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어, 직장맘의 고충을 그대로 드러냄

- 고학력 3,40대 직장맘들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확산 사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칼퇴근이나 패밀리데이 등을 운영하는 ‘직장문화 개선 제도(32.7%)’와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16.4%)’를 많이 선택함
- 고학력 3,40대 직장맘들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목표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61.5%)’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구체적인 성평등 사업으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 확대 등을 포함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53.1%)’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고학력 3,40대 직장맘들은 거주지 인근에 필요한 여성가족시설로 ‘가족여가활동시설(27.0%)’과 ‘아이돌봄시설(16.4%)’ ‘국공립 보육시설(15.5%)’을 요구함
- 이 여성들의 상당수가 가정(81.9%)과 직장(86.3%), 학교(70.4%)와 사회생활(88.9%)에서 성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특징을 보임
- 이 군집에 속한 여성들의 12.4%는 노은생활권에, 11.9%는 각각 온천생활권과 진잠·관저생활권에 속하고 있어 유성구와 서구의 신홍아파트 대단지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3-46] 군집#4: 고학력 직장맘의 특성(N=226)

변수	변수유형	변수내용			
연령대	범주형	40대 (41.6%) 30대 (40.3%)	50대 (16.4%) 20대 (1.8%)	60대 (0.0%)	
최종학력	범주형	4년제대졸 (54.4%) 대학원졸이상 (27.4%)	전문대졸 (12.4%) 고졸 (5.8%)	초졸이하 (0.0%) 중졸 (0.0%)	
혼인상태	범주형	기혼 (96.9%)	사별/이혼/별거 (2.7%)		혼인한적없음 (0.4%)
가구유형	범주형	배우자및자녀와동거 (80.1%) 배우자와동거 (13.7%) 자녀와동거 (4.0%)	혼자거주 (1.3%) 부모와동거 (0.4%) 기타 (0.4%)	손자녀와동거 0 (0.0%)	
자녀수	범주형	2명 (63.3%)	1명 (26.5%)	3명이상 (5.3%)	없음 (4.9%)
경제활동상태	범주형	정규상근 (73.9%) 일하지않음 (10.6%)	비정규상근 (7.5%) 자영업 (6.6%)	파트타임/일용직 (1.3%)	
월평균 가구 소득	범주형	600만원이상 (29.2%) 500만원대 (25.7%) 400만원대 (17.3%)	300만원대 (16.8%) 200만원대 (9.7%) 100만원대 (1.3%)	100만원미만 (0.0%)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범주형	가족돌봄문제 (28.3%) 일-가정생활양립의어려움 (21.7%) 과다한업무무인한스트레스 (13.3%) 저소득/부채등경제문제 (8.0%) 자기계발시간부족 (8.0%)	여가시간부족 (4.9%) 경력단절 (4.4%) 고용불안정성/취업문제 (3.1%) 신체건강문제 (3.1%) 노후대비 (3.1%)	심리적불안/정신 우울 (1.3%) 가족과의갈등/분화 (0.4%) 사회적관계형성유지어려움 (0.0%) 안전문제 (0.0%) 기타 (0.4%)	
성차별경험	범주형	가정생활 : 있음 (81.9%) 학교생활 : 있음 (70.4%)	직장생활 : 있음 (86.3%) 사회생활 : 있음 (88.9%)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범주형	직장문화개선제도 (32.7%) 아이돌봄서비스 (16.4%) 부모/가족교육 (14.2%) 성평등인식교육 (13.3%)	임신출산관련지원 (5.8%) 직업훈련/창업지원 (4.9%)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3.5%) 저소득다양한가족지원 (3.5%)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3.1%) 일자리상업발전 (2.7%) 폭력피해지원 (0.0%)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범주형	가족여가활동시설 (27.0%) 아이돌봄시설 (16.4%) 국공립보육시설 (15.5%) 교양교육기관 (15.0%) 가족교육/상담시설 (5.8%)	어린이도서관 (5.8%) 건강의료지원기관 (4.4%) 직업교육/취업상담기관 (3.5%) 여성단체/소모임공간 (3.1%) 자녀사교육시설 (2.7%)	성평등교육전문기관 (0.9%)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0.0%) 기타 (0.0%)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범주형	일과가족-생활의균형 (61.5%) 여성의대표성향상 (14.6%)	아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12.4%) 성별임금격차해소 (9.3%)	젠더폭력으로부터의안전 (2.2%)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범주형	일-가정양립지원 (53.1%) 성평등교육강화 (12.4%) 여성의대표성향상 (10.2%) 직장내불이익해소 (5.8%)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5.8%) 여성고용확대 (4.9%) 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 (4.4%) 위키/취약가족지원 (1.3%)	성평등위원회설치/전문가배치 (0.9%) 여성약자대상폭력예방/피해지원 (0.9%)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개선 (0.4%)	
생활권	범주형	노은 (12.4%) 은천 (11.9%) 진접관저 (11.9%) 문화 (8.8%) 둔산 (8.0%)	관평 (6.6%) 중리송촌 (6.2%) 산성 (5.3%) 과정용문 (4.4%) 도마 (3.5%)	월평 (3.5%) 중앙 (3.5%) 은행선화 (3.1%) 오정연축 (2.7%) 용전 (2.7%)	신탄진 (2.2%) 가오효동 (1.8%) 대흥 (1.3%)

(3) 군집#2: 일하는 중산층 40~50대 여성

- 이 군집은 50대가 35.0%, 40대가 29.0%, 60대가 25.1%를 이루고 있어 중장년층 여성이 대부분이며, 고졸이 41.0%, 4년제 대학졸업이 30.6%, 전문대졸이 16.4%로 구성돼 있음
- 대부분 결혼하여 자녀가 있고, 아직 자녀 및 배우자와 동거(55.2%)하거나, 이미 자녀가 독립하여 배우자와만 동거(25.7%)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이 군집 구성원의 70% 이상이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 상근직이 38.3%, 비정규 상근직이 17.5%, 파트타임 및 일용직이 8.2%로 비슷한 또래로 구성된 군집#5에 비해 정규 상근직 비율이 높음
- 이 군집에 속한 여성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높은 편인데, 월 400만원 이상이 전체의 43.2%에 달하며, 100만원대 미만과 100만원대 저소득층이 16.4%에 불과함
- 소득수준이 양호하다보니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것이기보다는 ‘신체건강문제(17.5%)’ ‘자기계발시간부족(14.8%)’이며, 이는 또래 집단인 군집#5가 노후대비를 크게 염려하고 있는데 비해 노후대비를 걱정하는 비율은 구성원의 7.7%에 그치고 있음
- 이 군집에 속하는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다수 답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사업들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칼퇴근 시행’이나 ‘패밀리데이’등을 포함하는 ‘직장문화개선 제도’를 가장 많이 꼽고 있음(20.2%)
- 중산층의 일하는 중장년 여성들은 비슷한 또래 군집#5와 비교해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상당히 많이 선택한 특징을 보임(41.5% vs. 28.1%)
- 이 군집의 구성원들은 주거지 인근에 필요한 여성가족시설로 ‘가족여가활동시설(28.4%)’와 ‘건강 및 의료지원기관(16.4%)’을 많이 선호했는데, 이는 군집#5의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기관 (23.5%)’과 ‘교양교육기관(18.3%)’ 선택과 결과와 차이를 보임

- 앞으로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성평등 정책 사업으로 이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18.0%)’과 ‘여성의 대표성 향상(16.9%)’을 많이 원했으며,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요구한 비율이 또래 군집#5(7.2%)와 차이를 보임
- 이 군집에 속하는 여성들은 온천 생활권(10.9%)과 괴정용문 생활권(8.2%), 문화 생활권(7.7%)에 주로 속해 있음

[표 3-47] 군집#2: 일하는 중산층 40~50대 여성의 특성(N=183)

변수	변수유형	변수내용			
연령대	범주형	50대 (35.0%) 40대 (29.0%)		60대 (25.1%) 30대 (10.9%) 20대 (0.0%)	
최종학력	범주형	고졸 (41.0%) 4년제대졸 (30.6%)		전문대졸 (16.4%) 초졸이하 (4.4%) 중졸 (4.4%) 대학원졸이상 (3.3%)	
혼인상태	범주형	기혼 (85.8%)		사별/이혼/별거 (14.2%) 혼인한적없음 (0.0%)	
가구유형	범주형	배우자및자녀와동거 (55.2%) 배우자와동거 (25.7%) 혼자거주 (10.9%)		자녀와동거 (6.0%) 부모와동거 (1.1%) 손자녀와동거 (0.5%) 기타 (0.5%)	
자녀수	범주형	2명 (57.9%)	1명 (23.5%)	3명이상 (15.8%)	없음 (2.7%)
경제활동상태	범주형	정규상근 (33.3%) 일하지않음 (27.9%)		비정규상근 (17.5%) 파트타임/일용직 (8.2%) 자영업 (8.2%)	
월평균 가구 소득	범주형	300만원대 (21.9%) 200만원대 (18.6%) 400만원대 (18.6%)		600만원이상 (12.6%) 500만원대 (12.0%) 100만원미만 (8.2%) 100만원대 (8.2%)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범주형	신체건강문제 (17.5%) 자기계발시간부족 (14.8%) 고용불안정성/취업문제 (13.7%) 저소득/부채등경제문제 (12%) 일-가정생활양립의어려움 (10.4%)		노후대비 (7.7%) 과다한업무무인한스트레스 (6.6%) 경력단절 (4.9%) 가족돌봄문제 (4.4%) 여가시간부족 (3.8%) 심리적불안정/우울 (2.2%) 가족과의갈등/분화 (1.1%) 안전문제 (0.5%) 사회적관계형성유지어려움 (0.0%) 기타 (0.5%)	
성차별경험	범주형	가정생활 : 없음 (80.9%) 학교생활 : 없음 (97.8%)		직장생활 : 없음 (92.3%) 사회생활 : 없음 (84.7%)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범주형	작장문화개선제도 (20.2%) 성평등인식교육 (18%) 아이돌봄서비스 (10.9%) 직업훈련/창업지원 (10.4%)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9.8%) 직업훈련/창업지원 (9.3%) 부모/가족교육 (7.7%) 일자리상담/알선 (5.5%) 저소득/다양한가족지원 (5.5%)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2.2%) 폭력피해지원 (0.5%)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범주형	가족여가활동시설 (28.4%) 건강/의료지원기관 (16.4%) 직업교육/취업상담기관 (13.7%) 교양교육기관 (13.7%) 여성단체/소모임공간 (7.7%)		국공립보육시설 (6.6%) 아이돌봄시설 (4.9%) 가족교육/상담시설 (3.8%) 어린이도서관 (3.3%) 자녀사교육시설 (1.6%) 성평등교육전문기관 (0.0%)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0.0%) 기타 (0.0%)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범주형	일과가족-생활의균형 (41.5%) 성별임금격차해소 (20.8%)		여성의대표성향상 (19.1%) 아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14.8%) 젠더폭력으로부러의안전 (3.8%)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범주형	일-가정양립지원 (18.0%) 여성의대표성향상 (16.9%) 성평등교육강화 (14.2%) 성평등위원회설치전문가배치 (11.5%)		여성고용확대 (10.9%)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7.7%) 직장내불이익해소 (6.6%) 위기/취약가족지원 (4.9%) 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 (4.4%)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개선 (3.3%) 여성/약자대상성폭력예방/피해지원 (1.6%)	
생활권	범주형	은천 (10.9%) 괴정용문 (8.2%) 문화 (7.7%) 둔산 (7.1%) 진잠관저 (7.1%)	용천 (6.6%) 은행선화 (6.6%) 중리송촌 (6.0%) 중양 (6.0%) 관평 (4.9%)	산성 (4.9%) 대흥 (4.4%) 월평 (4.4%) 노은 (3.8%) 도마 (3.8%)	가오효동 (3.3%) 신탄진 (3.3%) 오정연축 (1.1%)

(4) 군집#5: 노후가 불안한 50~60대 기혼 여성

- 이 군집은 50대가 39.2%, 60대 31.4%, 40대 26.8%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원의 38.6%가 고졸이고 26.8%가 초대졸로 일하지 않는 비율도 27.5%로 높은 편이며, 일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32.0%)이거나 파트타임 혹은 일용직(17.6%)이고 정규상근직은 15.7%에 불과함
- 2명(58.2%)이나 3명이상(22.2%)의 자녀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녀 및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50.3%)이 3,40대가 많았던 군집#4보다 훨씬 적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구형태가 34.6%로 높은 편임
- 구성원의 39.9%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과 300만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대 소득도 구성원의 19.6%에 달해 자녀수를 생각할 때 가구소득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이 군집에 속한 구성원들은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고용 불안과 취업문제(26.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노후대비’ 문제가 19.0%, ‘저소득과 부채 등 경제적 문제(11.8%)’도 적지 않아, 낮은 소득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
- 이 군집의 구성원들은 가정(95.4%), 학교(93.5%), 직장(96.7%)과 사회생활(99.3%)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교육과 취업 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차별적인 관행에 많이 노출된 중장년층 여성의 특성을 드러냄
- 이 군집에 속한 여성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 목표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28.1%)’ 못지않게 ‘성별 임금격차 해소(26.8%)’를 많이 선택했으며, ‘여성의 대표성 향상(18.3%)’도 많이 선택함

[표 3-48] 군집#5: 노후불안 증장년 여성의 특성(N=153)

변수	변수유형	변수내용			
연령대	범주형	50대 (39.2%) 60대 (31.4%)		40대 (26.8%) 30대 (2.6%)	20대 (0.0%)
최종학력	범주형	고졸 (38.6%) 전문대졸 (26.8%)		4년제대졸 (24.2%) 중졸 (5.9%)	초졸이하 (2.6%) 대학원졸이상 (2.0%)
혼인상태	범주형	기혼 (88.9%)		사별/이혼/별거 (10.5%)	혼인한적없음 (0.7%)
가구유형	범주형	배우자및자녀와동거 (50.3%) 배우자와동거 (34.6%) 자녀와동거 (11.1%)		혼자거주 (3.9%) 손자녀와동거 (0.0%) 부모와동거 (0.0%)	기타 (0.0%)
자녀수	범주형	2명 (58.2%)	3명이상 (22.2%)	1명 (17.0%)	없음 (2.6%)
경제활동상태	범주형	비정규상근 (32.0%) 일하지않음 (27.5%)		파트타임/일용직 (17.6%) 정규상근 (15.7%)	자영업 (7.2%)
월평균 가구 소득	범주형	300만원대 (21.6%) 200만원대 (18.3%) 500만원대 (17.6%)		400만원대 (14.4%) 100만원미만 (11.1%) 100만원대 (8.5%)	600만원이상 (8.5%)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범주형	고용불안정성/취업문제 (26.8%) 노후대비 (19.0%) 저소득/부채등경제문제 (11.8%) 신체건강문제 (10.5%) 과다한업무무인한스트레스 (9.2%)		자기개발시간부족 (6.5%) 경력단절 (5.9%) 가족돌봄문제 (4.6%) 일-가정생활양립의어려움 (2.6%) 여가시간부족 (2.0%)	심리적불안/우울 (1.3%) 가족과의갈등/분화 (0.0%) 사회적관계형성유지어려움 (0.0%) 안전문제 (0.0%) 기타 (0.0%)
성차별경험	범주형	가정생활 : 있음 (95.4%) 학교생활 : 있음 (93.5%)		직장생활 : 있음 (96.7%) 사회생활 : 있음 (99.3%)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범주형	성평등인식교육 (41.2%)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1.8%) 부모/가족교육 (11.8%) 일자리상담/알선 (7.8%)		아이돌봄서비스 (6.5%) 직업훈련/창업지원 (5.2%) 임신출산관련지원 (5.2%) 저소득다양한가족지원 (3.9%)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3.9%) 직장문화개선제도 (2.0%) 폭력피해지원 (0.7%)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범주형	직업교육/취업상담기관 (23.5%) 교양교육기관 (18.3%) 가족여가활동시설 (17.0%) 건강/의료지원기관 (15.0%) 가족교육/상담시설 (5.2%)		여성단체소모임공간 (4.6%) 성평등교육전문기관 (4.6%) 아이돌봄시설 (3.9%) 자녀사교육시설 (2.6%) 국립보육시설 (2.0%)	어린이도서관 (2.0%)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1.3%) 기타 (0.0%)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범주형	일과가족-생활의균형 (28.1%) 성별임금격차해소 (26.8%)		아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19.0%) 여성의대표성향상 (18.3%)	젠더폭력으로부터의안전 (7.8%)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범주형	일-가정양립지원 (23.5%) 성평등교육강화 (19.0%) 여성고용확대 (18.3%) 성평등위원회설치/전문가배치 (8.5%)		여성의대표성향상 (7.2%) 여성/약자대상폭력예방/피해지원 (5.9%)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5.2%)	위기/취약가족지원 (3.9%) 직장내불이해소 5 (3.3%) 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 5 (3.3%)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개선 2.0%
생활권	범주형	가오효동 (10.5%) 괴정용문 (9.8%) 도마 (9.8%) 둔산 (7.2%) 진잠관저 (7.2%)	노은 (6.5%) 은권 (6.5%) 문화 (5.9%) 중리송촌 (5.2%) 대흥 (4.6%)	오정연축 (4.6%) 용전 (4.6%) 신탄전 (3.9%) 중앙 (3.9%) 관평 (3.3%)	산성 (2.6%) 은행선화 (2.6%) 월평 (1.3%)

- 현재 대전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사업들 중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성평등 인식 교육’이 구성원의 41.2%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11.8%)’ ‘아버지 학교 등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11.8%)’이 효과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음
- 노후가 불안한 중장년층 여성들은 앞으로 필요한 성평등 정책 사업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23.5%)’ 외에도 ‘성평등교육의 강화(19.0%)’와 ‘여성 고용의 확대(18.3%)’를 다수 선택함
- 특히 여성 고용의 확대를 원하는 비율은 20대 비취업자가 많은 군집과 유사한 정도로 높은 점은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에서도 드러났는데, 주거지 인근에 필요한 시설로 이 여성들은 ‘직업교육과 취업상담기관(23.5%)’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노후가 불안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직업교육과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중장년 여성들은 가오·효동생활권(10.5%)과 괴정·용문생활권(9.8%), 그리고 도마생활권(9.8%), 둔산생활권(7.2%)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5) 군집#3: 정규직 20~30대 비혼 여성

-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군집#3의 구성원들은 20대 55.4%, 30대 25.9%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혼인한 적 없고(86.6%), 부모와 동거(55.4%)하거나 혼자 거주(36.6%)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이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53.6%),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고졸(30.4%)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일하지 않는 비율도 23.2%로 적지 않지만, 상당수가 정규상근직(59.8%)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대가 32.1%로 가장 많으나, 100만원 미만(7.1%)이나 100만원대(11.6%)도 적지 않음
- 정규직 2,30대 비혼 여성들은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고용불안과 취업문제(24.1%)’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기계발시간 부족(19.6%)’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18.8%)’도 많이 선택하여,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승진과 이직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군집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또래가 속한 군집#1과 비교할 때, 가정(90.2%), 학교(91.1%), 직장(88.4%)과 사회생활(96.4%)에서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특징을 보임
- 정규직 2,30대 비혼 여성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 목표로 특히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17.0%)’을 강조한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어떤 군집보다도 높은 비율임(또래 군집#1은 같은 항목을 구성원의 5.4%만이 선택함)
- 이 군집에 속한 구성원들은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 사업들 중 ‘직장문화 개선 제도(33.0%)’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봤으며, 그 다음으로 ‘성평등인식 교육(17.9%)’과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14.3%)’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21.4%)’ 못지않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해소(19.6%)’와 ‘성평등교육 강화(17.0%)’가 필요하다고 답함
- 거주지 인근에 필요한 시설로 ‘가족여가활동시설(16.1%)’을 비롯해 ‘직업교육과 취업상담기관(14.3%)’등을 고르게 선택한 특징을 보임
- 이 군집에 속하는 여성들은 진잠·관저생활권(9.8%), 온천생활권(8.9%)과 가오·효동생활권(7.1%) 및 관평(7.1%)과 괴정·용문생활권(7.1%), 둔산생활권(7.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9] 군집#3: 정규직 20~30대 비혼 여성의 특성(N=112)

변수	변수유형	변수내용			
연령대	범주형	20대 (55.4%) 30대 (25.9%)	40대 (13.4%) 50대 (5.4%)	60대 (0.0%)	
최종학력	범주형	4년제대졸 (53.6%) 고졸 (30.4%)	전문대졸 (8.0%) 대학원졸이상 (6.3%)	중졸 (1.8%) 초졸이하 (0.0%)	
혼인상태	범주형	혼인한적없음 (86.6%)		기혼 (10.7%)	사별/이혼/별거 (2.7%)
가구유형	범주형	부모와동거 (55.4%) 혼자거주 (36.6%) 배우자와동거 (6.3%)	기타 (1.8%) 배우자및자녀와동거 (0.0%) 자녀와동거 (0.0%)	손자녀와동거 (0.0%)	
자녀수	범주형	없음 (95.5%)	2명 (3.6%)	3명이상 (0.9%)	1명 (0.0%)
경제활동상태	범주형	정규상근 (59.8%) 일하지않음 (23.2%)	파트타임/일용직 (8.0%) 비정규상근 (5.4%)	자영업 (3.6%)	
월평균 가구 소득	범주형	200만원대 (32.1%) 300만원대 (17.9%) 500만원대 (12.5%)	100만원대 (11.6%) 600만원이상 (9.8%) 400만원대 (8.9%)	100만원미만 (7.1%)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범주형	고용불안정성/취업문제 (24.1%) 자기개발시간부족 (19.6%) 과다한업무무인한스트레스 (18.8%) 여가시간부족 (8.9%) 저소득/부채등경제문제 (8.0%)	신체건강문제 (4.5%) 심리적불안정/우울 (4.5%) 일-가정생활양립의어려움 (3.6%) 노후대비 (3.6%) 경력단절 (1.8%)	가족돌봄문제 (0.9%) 사회적관계형성유지어려움 (0.9%) 안전문제 (0.9%) 가족과의갈등/분화 (0.0%) 기타 (0.0%)	
성차별경험	범주형	가정생활 : 있음 (90.2%) 학교생활 : 있음 (91.1%)	직장생활 : 있음 (88.4%) 사회생활 : 있음 (96.4%)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범주형	직장문화개선제도 (33.0%) 성평등인식교육 (17.9%)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4.3%) 임신출산관련지원 (8.0%)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7.1%) 부모/가족교육 (5.4%) 아이돌봄서비스 (5.4%) 폭력피해지원 (3.6%)	직업훈련/창업지원 (2.7%) 저소득다양한가족지원 (1.8%) 일자리상업발전 (0.9%)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범주형	가족여가활동시설 (16.1%) 직업교육/취업상담기관 (14.3%) 가족교육/상담시설 (14.3%) 교양교육기관 (12.5%) 아이돌봄시설 (11.6%)	건강의료지원기관 (9.8%) 국공립보육시설 (6.3%)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5.4%) 성평등교육전문기관 (3.6%) 어린이도서관 (3.6%)	여성단체/소모임공간 (2.7%) 차녀교육시설 (0.0%) 기타 (0.0%)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범주형	일과가족-생활의균형 (37.5%) 성별임금격차해소 (25.0%)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17.0%) 여성의 대표성향상 (12.5%)	이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8.0%)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범주형	일-가정양립지원 (21.4%) 직장내불이익해소 (19.6%) 성평등교육강화 (17.0%) 여성의대표성향상 (15.2%)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개선 (7.1%) 여성고용확대 (6.3%) 성평등위원회설치/전문기체치 (4.5%)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2.7%)	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 (2.7%) 여성약자대상폭력예방/피해지원 (2.7%) 위기관리교육지원 (0.9%)	
생활권	범주형	진잠관저 (9.8%) 은천 (8.9%) 가오효동 (7.1%) 관평 (7.1%) 괴정용문 (7.1%)	둔산 (7.1%) 문화 (7.1%) 은행선화 (7.1%) 중앙 (6.3%) 도마 (5.4%)	용전 (5.4%) 중리송촌 (5.4%) 노은 (4.5%) 대흥 (3.6%) 월평 (3.6%)	오정연축 (2.7%) 산성 (1.8%) 신탄진 (0.0%)

(6) 군집#1: 일하고 싶은 20대 비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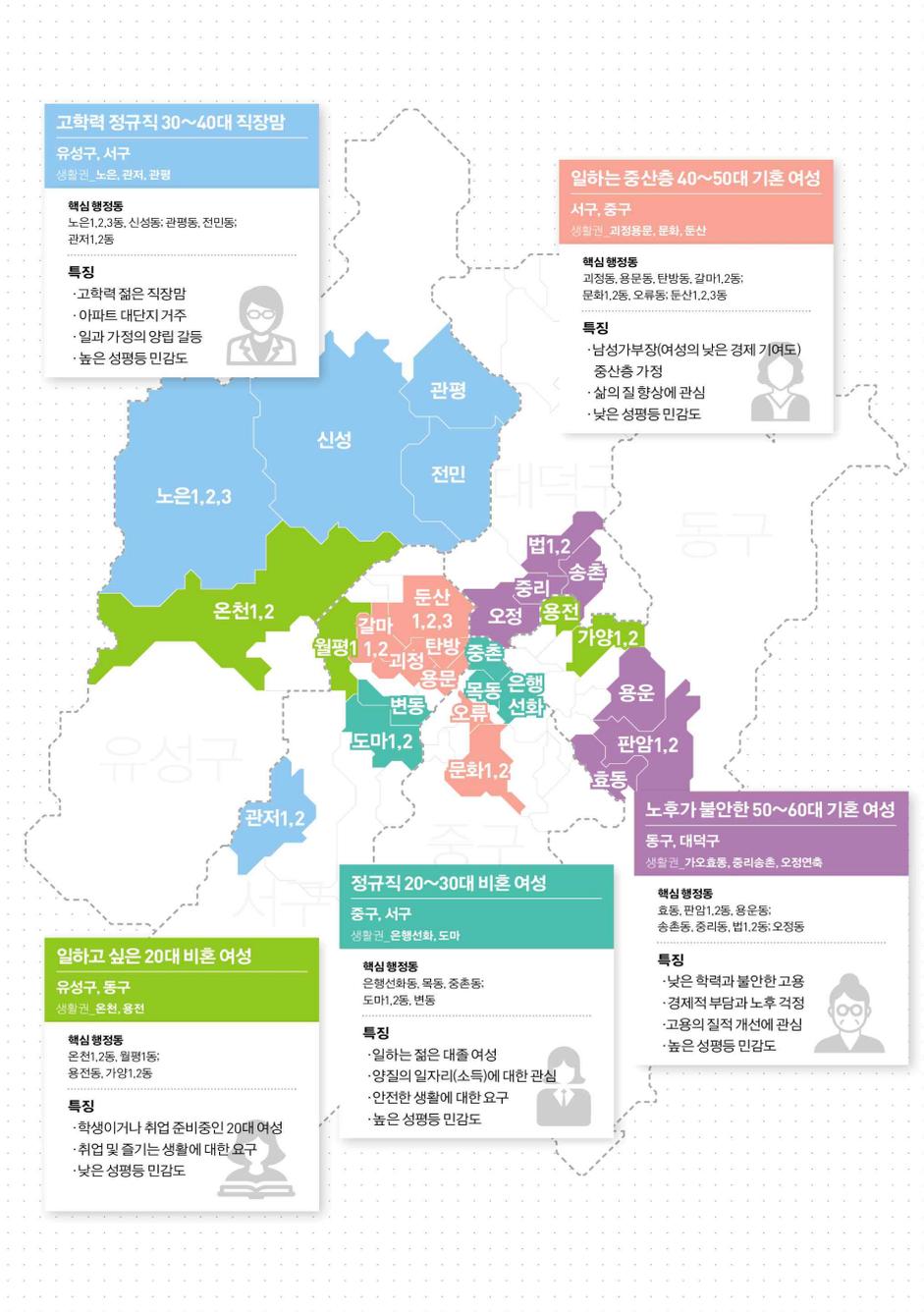
- 이 군집은 다섯 개의 군집 중 가장 크기가 작은 군집으로, 20대가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26.1%, 대부분이 혼인한 적 없는 (86.5%) 젊은 여성으로 구성돼 있음
- 앞서 논의한 군집#3과 유사하게 부모와 동거(47.7%)하고 있거나 혼자 거주(35.1%)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고졸, 45.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4년제 대학졸업이 36.9%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대가 30.6%로 가장 많으나, 100만원대 (11.7%)와 100만원 미만(10.8%)도 적지 않음
- 이들은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고용불안정이나 취업문제 (33.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여가시간 부족(12.6%)'을 다른 어떤 군집보다도 높은 비율로 선택한 특징을 보임
- 또래인 군집#3과 달리 이들은 '저소득이나 부채 등 경제적 문제(11.7%)'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함
- 흥미로운 점은 이 군집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측면이며, 이는 앞서 논의한 같은 또래의 군집#3과 상반되는 결과임
- 이 군집의 구성원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 목표로 '일과 가족 생활의 균형(44.1%)'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성별임금격차 해소 (26.1%)'를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여 군집#3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일하고 싶은 20대 비혼 여성들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사업들 중 '직장문화 개선 제도(24.3%)'가 가장 효과 있다고 평가했으며, '성평등인식 교육(18.9%)'과 '아이돌봄서비스 (12.6%)'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했음
- 앞으로 성평등한 대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26.1%)' 못지않게 '여성고용의 확대(20.7%)'가 많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또래인 군집#3과 크게 다른 특징임

- 일하고 싶은 20대 비혼 여성들은 거주지 인근에 필요한 여성가족시설로 군집#3과 달리 ‘교양교육기관(21.6%)’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기관(18.0%)’에 대한 수요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이 군집의 구성원들은 ‘건강과 의료지원을 위한 기관(11.7%)’에 대한 수요도 연령대가 높은 군집과 유사한 특징을 보임
- 일하고 싶은 20대 비혼 여성들은 괴정·용문생활권(10.8%)과 온천생활권(9.0%), 가오·효동생활권(8.1%) 및 진잠·관저생활권(8.1%)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0] 군집#1: 일하고 싶은 20대 비혼 여성의 특성(N=111)

변수	변수유형	변수내용				
연령대	범주형	20대 (67.6%) 30대 (26.1%)	40대 (4.5%) 50대 (1.8%)	60대 (0.0%)		
최종학력	범주형	고졸 (45.0%) 4년제대졸 (36.9%)	전문대졸 (11.7%) 대학원졸이상 (5.4%)	중졸 (0.9%) 초졸이하 (0.0%)		
혼인상태	범주형	혼인한적없음 (86.5%)		기혼 (12.6%)	사별/이혼/별거 (0.9%)	
가구유형	범주형	부모와동거 (47.7%) 혼자거주 (35.1%) 배우자와동거 (10.8%)	기타 (5.4%) 손자녀와동거 (0.9%) 배우자및자녀와동거 (0.0%)	자녀와동거 (0.0%)		
자녀수	범주형	없음 (98.2%)	3명이상 (1.8%)	1명 (0.0%)	2명 (0.0%)	
경제활동상태	범주형	정규상근 (45.0%) 일하지않음 (31.5%)	비정규상근 (12.6%) 파트타임/일용직 (9.9%)	자영업 (0.9%)		
월평균 가구 소득	범주형	200만원대 (30.6%) 600만원이상 (18.9%) 100만원대 (11.7%)	100만원미만 (10.8%) 500만원대 (10.8%) 300만원대 (9.9%)	400만원대 (7.2%)		
현재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범주형	고용불안정성/취업문제 (33.3%) 여가시간부족 (12.6%) 저소득/부채등경제문제 (11.7%) 자기개발시간부족 (11.7%) 과다한업무로인한스트레스 (9.0%)	신체건강문제 (6.3%) 노후대비 (3.6%) 경력단절 (3.6%) 일-가정생활양립의어려움 (2.7%) 심리적불안정/우울 (1.8%)	안전문제 (0.9%) 가족돌봄문제 (0.9%) 가족과의감동/불화 (0.9%) 사회적관계형성유지어려움 (0.0%) 기타 (0.9%)		
성차별경험	범주형	가정생활 : 없음 (98.2%)		직장생활 : 없음 (88.3%)		
		학교생활 : 없음 (98.2%)		사회생활 : 없음 (81.1%)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범주형	직장문화개선제도 (24.3%) 성평등인식교육 (18.9%) 아이돌봄서비스 (12.6%) 직업훈련/창업지원 (10.8%)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9.9%) 부모/가족교육 (9.0%) 임신출산관련지원 (6.3%) 일자리상담/알선 (3.6%)	저소득/다양한가족지원 (2.7%)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1.8%) 폭력피해지원 (0.0%)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	범주형	교양교육기관 (21.6%) 직업교육/취업상담기관 (18.0%) 건강/의료지원기관 (11.7%) 가족여가활동시설 (10.8%) 아이돌봄시설 (9.0%)	국공립보육시설 (8.1%) 가족교육/상담시설 (6.3%) 어린이도서관 (4.5%) 성평등교육전문기관 (3.6%) 여성단체/소모임공간 (2.7%)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1.8%) 자녀사교육시설 (0.9%) 기타 (0.9%)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범주형	일과가족-생활의균형 (44.1%) 성별임금격차해소 (26.1%)	아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12.6%) 여성의대표성향상 (11.7%)	젠더폭력으로부터의안전 (5.4%)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	범주형	일-가정양립지원 (26.1%) 여성고용확대 (20.7%) 성평등교육강화 (17.1%) 여성의대표성향상 (9.9%)	성평등위원회실제전문가배치 (8.1%) 직장내불이익해소 (7.2%) 여성/약자대상폭력예방/피해지원 (3.6%)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확대 (2.7%)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개선 (2.7%) 위기취약가족지원 (1.8%) 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 (0.0%)		
생활권	범주형	괴정용문 (10.8%) 은천 (9.0%) 가오효동 (8.1%) 진잠관저 (8.1%) 대흥 (7.2%)	문화 (7.2%) 용천 (7.2%) 중리송촌 (7.2%) 도마 (5.4%) 노은 (4.5%)	둔산 (4.5%) 산성 (4.5%) 월평 (3.6%) 은행선화 (3.6%) 관평 (2.7%)	신탄진 (2.7%) 오정연축 (1.8%) 중앙 (1.8%)	

- [그림 3-3]은 본 연구 설문에 응한 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평등 인식의 특성 그리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를 군집분석을 통해 다섯 집단으로 구분해 시각화한 결과임
- 조사 응답자가 서구와 유성구에 많다보니, 군집 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주지가 꼭 해당 군집의 특성을 가진 여성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군집 간 비교에서 특징적으로 거주지 비율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연구자의 분석에 근거해 핵심 행정동을 제시함(해당 군집의 핵심 행정동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것은 아님)



[그림 3-3] 대전지역 성평등 클러스터와 주요 특징

4장

대전시 성평등 정책 수요 전망

1. 성평등 정책 수요조사 결과의 의미
2. 여성 세대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

4장 대전시 성평등 정책 수요 전망

1. 성평등 정책 수요조사 결과의 의미

- 시민 1,593명이 참여한 대전시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와 목표 설정 및 사업 수요 조사 결과는 남녀 대전 시민, 연령대에 따른 대전 여성의 생각과 요구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임
- **“특히 직장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적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고, 채용이나 임용, 승진 등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경험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희롱, 비하, 폭력 경험”**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4,50대 중장년 여성들이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 성희롱이나 성비하, 외모비교 등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적 경험은 2,30대 젊은 여성들이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덜 (임금)노동하고 가사와 돌봄은 더 길게 하는 데 비해, 서구와 유성구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임금노동, 여성-가사·돌봄노동’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동구와 중구 및 대덕구 여성들의 임금노동시간은 남성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고용과 소득은 모두에게 가장 큰 숙제”** 남성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주로 노동과 경제문제-고용, 소득, 노후대비와 관련한 것인데 비해, 여성은 고용이라는 공통의 어려움 외에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자기계발 시간 부족’ ‘가족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임금노동과 일상생활 사이에서의 갈등 관련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20대 여성은 ‘고용불안정성과 취업문제’를 최근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30대 여성은 ‘가족돌봄문제’를, 50대 여성은 ‘건강과 노후대비’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해, 세대별 특성을 보임

- 앞으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전망을 여성이 남성보다 어둡게 보고 있었으며, 가정에서의 성평등 전망이 제일 밝은 반면,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 전망이 가장 어둡게 나타났음
-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사업들 중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 받은 사업은 ‘패밀리 데이’ 등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한 ‘직장문화 개선제도’였으며, ‘성평등 인식 교육’도 효과가 좋다는 평을 두 번째로 많이 받음
- 주거지 인근에 필요한 여성가족관련 시설로는 ‘가족 여가활동 시설’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교육’이나 ‘교양교육’ 등 시민 교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남성들은 ‘건강과 의료지원 기관’을, 여성들은 ‘교양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은 ‘어린이 도서관’이나 ‘여성단체 및 소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에 대한 수요도 높았음
- 20대 여성은 취업 관련한 교육 시설을, 30대 여성은 아이돌봄시설, 40대는 가족여가시설, 50대는 각종 교육 시설, 60대 여성은 건강 및 의료 시설에 대한 수요가 연령대별로 특징적으로 드러났음
-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에 대한 높은 수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로 대전시민은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이를 적게 선택했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남성보다 더 많이 선택함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으로 대전시민은 육아휴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성평등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에 대한 수요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여성 관리직 승진이나 정치인 양성 등을 포함한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함
- 3,40대 여성들은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20대와 50대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았으며, 60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수요도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임

-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군집분석은 연령과 혼인상태, 자녀 수 및 차별경험과 정책수요에 따라 여성들이 구분된 각기 다른 집단으로 나뉠 수 있는지 보여줌
- 고학력의 젊은 직장맘 집단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서 오는 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높은 성평등 민감도를 가지고 있었음
- 일하는 중산층의 중년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정 모델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으나, 낮은 성평등 민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장년과 노년층이지만 소득이 낮은 집단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크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음
- 20대 여성들은 크게 일하고 있는 여성과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 두 집단으로 나뉘는데, 일하는 여성들은 높은 성평등 민감도를 보인 반면, 일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은 여성 고용 확대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성평등 민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의 사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정책 수요 전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음

[표 4-1] 「2017 양성평등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 평가와 정책 수요 전망

성평등 지수 지표 영역	「2017양성평등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세부 사업	자체 평가와 주요 실적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와 수요 전망
성평등 의식· 문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교육 11회 • 가족상담 3,477회 • 양성평등교육 24,28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대전지역 성평등 정도 60점 미만 • 여전히 여성이 더 강하게 느끼는 성차별 • 직장과 사회관계 속에서 느끼는 차별과 혐오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 양성평등인식교육의 효과 높지 않음 • 양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 거주지 인근 성평등교육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
가족/ 문화/ 정보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대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기간과 자녀연령의 확대 • 대체인력 지원률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인 문화 만드는 제도 효과 높지 않음 • 일과 가족생활 균형 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
	가족친화인증,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직장문화조성(대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선택제 채용 2016년 1.4% → 2017년 3% 목표 • 유연근무제 참여 966명 • 가족사랑의 날 월 2회 운영 • 가족친화인증기업 13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0대 여성의 노동과 가사·돌봄시간 가장 길어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장 큰 스트레스 • 일과 가족생활 균형 사업에 대한 3,40대 여성의 높은 수요 • 거주지 인근 가족여가활동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

성평등 지수 지표 영역	「2017양성평등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세부 사업	자체 평가와 주요 실적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와 수요 전망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 → 2016년 33개소로 증가 • 시간제 어린이집 2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 • 아이돌보미 연계 110,104건(목표 초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보육, 임시보육 등 거주지 인근 아이돌봄시설에 대한 수요 •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성평등한 사회참여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 지원 7,841명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14개 과정, 245명 수료 • 여성창업지원시설 14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인근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기관에 대한 높은 수요 • 평생교육기관, 여성가족원 등 거주지 인근 교양교육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수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과 훈련	여성 고용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협동조합 30개 설립 • 여성친화기업 15개 기업 협약 • 새일센터 취업 3,345명, 창업 9명 • 여성 취·창업박람회 취업 4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고용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취·창업을 위한 자기계발 요구 강해 • 여성 고용 확대에 대한 20대 여성의 높은 수요 • 거주지 인근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기관에 대한 높은 수요

성평등 지수 지표 영역	「2017양성평등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세부 사업	자체 평가와 주요 실적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와 수요 전망
	여성 관리직 확대 및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45명(2016년, 11.5%) •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2016년 113명(30.4%) • 위원회 여성 참여율 132개 위원회 2,416명 중 978명(2016년 12월,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대표성 향상(정책 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
여성의 인권· 복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직속·산하기관 교육(참석률 90%) • 소규모사업장 찾아가는 교육 151회, 11,931명 • 군부대 찾아가는 교육 21회, 98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인근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
복지/ 보건/ 안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8개소 • 해바라기센터 지원 13,425건 • 성폭력상담소 지원 4,892건 •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2호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 12호 →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성평등 지수 지표 영역	「2017양성평등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세부 사업	자체 평가와 주요 실적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와 수요 전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PTED사업 2개소, 7억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안전귀가지원, 마을안전지도제작, 아동안전지도 제작 • 학교주변 환경개선 3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취약 여성과 가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 치료와 직업훈련 2,312건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56명 •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1,90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또는 취약 가족 지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고위험 산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인근 건강 및 의료 지원 기관에 대한 수요
-	양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위원회 민간 위촉 13명, 운영 미흡 • 양성평등정책책임관(기획조정실장)과 전담전문인력 지정 운영 1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기초자치구 5.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위원회 및 전문가 배치 필요성에 대한 남성의 수요

2. 여성 세대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

-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세대별로 다르게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 목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수요를 드러냄
- 앞서 논의한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여성 세대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 [표 4-2]와 같음
- 전략 과제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특정 계층(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사업은 제외했으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주류화 제도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등)도 제외함

[표 4-2] 여성 세대 · 생활권별 성평등 정책 목표와 전략 과제

	성평등 정책 목표	성평등 정책 대상과 주요 사업		주요 사업 대상 및 추진 체계
20대	여성 고용 활성화와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 CEPTED 확산과 도시환경 개선 관련 여성 의견 수렴(모니터링) 강화 - 위급상황 대처 방안 강화(비상벨, 비상전화 등) 	
		비취업 (대학생)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혜 확대 - 커리어 개발 상담 - 지역 기업 인턴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용진·괴정용문 생활권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 직장문화개선(저녁이 있는 삶, 육아휴직과 돌봄휴가 사용 권장 및 확산) 캠페인과 인센티브 확대 - 가족상담과 교육(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프로그램 강화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잠관저·온천·도마 생활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원

	성평등 정책 목표	성평등 정책 대상과 주요 사업	주요 사업 대상 및 추진 체계
30대	일과 가정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산, 보육 품질 관리 - 직장문화개선 캠페인,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창업교육 내실화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은·관평·둔산 생활권 - 시·구청, 공공기관 - 민간기업 실행 시 인센티브 부여 -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원 - 여성가족원(코워킹·창업공간)
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과 교육(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프로그램 강화와 확산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 상담과 동아리 활동, 진로 교육 지원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제 활성화 - 여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은·관평·둔산 생활권 - 시·구청, 공공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위센터 등 - 민간기업 실행 시 인센티브 부여
50대	여성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과 양성평등 교육(평등한 부부 교육,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프로그램 강화와 확산 - 양질의 일자리 알선 및 고용 지속을 위한 훈련과 교육 -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창업상담 활성화 - 지역 기업 인턴제 활성화 - 정책제안 및 결정과정(위원회, 정책 모니터링)에의 참여 - 노후대비 경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마·둔산·중리송촌 생활권 - 동구, 대덕구 거주 저소득 중장년 여성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족원, 대전경제교육센터

	성평등 정책 목표	성평등 정책 대상과 주요 사업	주요 사업 대상 및 추진 체계
60대	건강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 돌봄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동네 탐방 등) - 찾아가는 건강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예방접종, 위험 질환 검사 등) - 구직정보와 직업훈련 기회 창출 - 노인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오효동·오정연축 생활권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 보건소 - 지역 시니어클럽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2017), <제1차 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 마경희(2007), “성 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합정인가?”.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39-67.
- 마경희 · 김경희 · 박수범 · 이 술(2016), <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경원 · 정경석(2014),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대전발전연구원.
- 배은경(2016), “젠더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여성학> 제32권 1호. 1-45.
- 신경아(2016),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 제32권 4호. 1-36.
-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6b),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이재경 · 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1-33.
- 주혜진 · 오윤희 · 윤지원(2016), <2016 숫자로 보는 대전 여성가족의 삶>,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부록 1. 부록표

[부표 1-1] 여성이 생각하는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차별	미미한차별	중간 정도의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차별	χ^2 (p)	평균 (표준편차)	F (p)
전체	410 (100.0)	110 (26.8)	116 (28.3)	137 (33.4)	40 (9.8)	7 (1.7)		2.31 (1.025)	
20대	59 (100.0)	20 (33.9)	16 (27.1)	15 (25.4)	8 (13.6)	0 [#] (0.0)	19.475 (.245)	2.19 (1.058)	.736 (.568)
30대	92 (100.0)	16 (17.4)	34 (37.0)	31 (33.7)	8 (8.7)	3 [#] (3.3)		2.43 (.987)	
40대	116 (100.0)	38 (32.8)	26 (22.4)	38 (32.8)	13 (11.2)	1 [#] (0.9)		2.25 (1.062)	
50대	95 (100.0)	27 (28.4)	25 (26.3)	32 (33.7)	9 (9.5)	2 [#] (2.1)		2.31 (1.053)	
60대	48 (100.0)	9 (18.8)	15 (31.3)	21 (43.8)	2 [#] (4.2)	1 [#] (2.1)		2.40 (.917)	

#. 해당 셀(24.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 여성 중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부표 1-2] 여성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정도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매우 미미한차별	미미한차별	중간 정도의차별	강한 차별	매우 강한차별	χ^2 (p)	평균 (표준편차)	F (p)
전체	469 (100.0)	76 (16.2)	129 (27.5)	160 (34.1)	83 (17.7)	21 (4.5)		2.67 (1.082)	
20대	59 (100.0)	12 (20.3)	16 (27.1)	20 (33.9)	9 (15.3)	2 [#] (3.4)	19.075 (.265)	2.54 ^a (1.088)	3.417 ^{**} (.009)
30대	112 (100.0)	9 (8.0)	30 (26.8)	41 (36.6)	24 (21.4)	8 (7.1)		2.93 ^a (1.046)	
40대	143 (100.0)	22 (15.4)	39 (27.3)	44 (30.8)	31 (21.7)	7 (4.9)		2.73 ^a (1.113)	
50대	108 (100.0)	22 (20.4)	33 (30.6)	36 (33.3)	13 (12.0)	4 [#] (3.7)		2.48 ^a (1.063)	
60대	47 (100.0)	11 (23.4)	11 (23.4)	19 (40.4)	6 (12.8)	0 [#] (0.0)		2.43 ^a (.994)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셀(12.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Post-hoc (Scheffe) a

* 여성 중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부표 1-3] 여성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에서 성차별 경험 여부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없음	있음	χ^2 (p)
전체	785 (100.0)	275 (35.0)	510 (65.0)	8.161 (.086)
20대	141 (100.0)	62 (44.0)	79 (56.0)	
30대	173 (100.0)	54 (31.2)	119 (68.8)	
40대	208 (100.0)	64 (30.8)	144 (69.2)	
50대	169 (100.0)	59 (34.9)	110 (65.1)	
60대	94 (100.0)	36 (38.3)	58 (61.7)	

[부표 1-4] 여성의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자치구비교

(단위: 명, 시)

구분	자치구	N	평균	표준편차	F (p)
노동시간	동구	116	5.84	3.181	.460 (.765)
	중구	137	6.30	3.216	
	서구	265	6.18	3.215	
	유성구	180	6.02	3.373	
	대덕구	87	5.91	3.131	
가사시간	동구	116	2.73	2.422	.914 (.455)
	중구	137	2.72	2.176	
	서구	265	2.47	2.104	
	유성구	180	2.86	2.373	
	대덕구	87	2.74	2.175	
돌봄시간	동구	116	2.10	2.538	2.198 (.068)
	중구	137	1.75	2.064	
	서구	265	2.11	2.407	
	유성구	180	2.57	2.651	
	대덕구	87	2.54	4.461	
여가시간	동구	116	2.35	1.736	1.061 (.375)
	중구	137	2.09	1.704	
	서구	265	2.26	2.045	
	유성구	180	2.32	2.173	
	대덕구	87	1.90	1.518	

[부표 1-5] 1일 평균 노동, 가사, 돌봄, 여가 시간-자치구별 남녀비교

(단위: 명, 시간)

연령대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p)
동구	노동시간	남성	105	5.838	3.6928	.004
		여성	116	5.836	3.1813	(.997)
	가사시간	남성	105	1.195	1.3346	-5.916 ^{***}
		여성	116	2.733	2.4222	(.000)
	돌봄시간	남성	105	1.419	2.5787	-1.987 [*]
		여성	116	2.103	2.5380	(.048)
여가시간	남성	105	2.352	1.7973	-.004	
	여성	116	2.353	1.7358	(.996)	
중구	노동시간	남성	143	6.434	3.2922	.345
		여성	137	6.299	3.2161	(.730)
	가사시간	남성	143	1.413	1.4839	-5.829 ^{***}
		여성	137	2.715	2.1759	(.000)
	돌봄시간	남성	143	1.217	1.5112	-2.466 [*]
		여성	137	1.752	2.0643	(.014)
여가시간	남성	143	2.217	1.7163	.632	
	여성	137	2.088	1.7041	(.528)	
서구	노동시간	남성	263	6.895	3.1120	2.607 ^{**}
		여성	265	6.177	3.2149	(.009)
	가사시간	남성	263	1.308	1.1925	-7.790 ^{***}
		여성	265	2.466	2.1040	(.000)
	돌봄시간	남성	263	1.209	1.2900	-5.385 ^{***}
		여성	265	2.113	2.4071	(.000)
여가시간	남성	263	1.966	1.8230	-1.759	
	여성	265	2.262	2.0445	(.079)	
유성구	노동시간	남성	198	6.682	2.8984	2.046 [*]
		여성	180	6.017	3.3734	(.041)
	가사시간	남성	198	1.455	1.7497	-6.479 ^{***}
		여성	180	2.856	2.3733	(.000)
	돌봄시간	남성	198	1.636	2.3585	-3.612 ^{***}
		여성	180	2.572	2.6511	(.000)
여가시간	남성	198	2.364	2.4327	.197	
	여성	180	2.317	2.1726	(.844)	
대덕구	노동시간	남성	99	5.960	2.8959	.117
		여성	87	5.908	3.1314	(.907)
	가사시간	남성	99	1.636	1.4877	-3.968 ^{***}
		여성	87	2.736	2.1752	(.000)
	돌봄시간	남성	99	1.303	1.5283	-2.463 [*]
		여성	87	2.540	4.4612	(.015)
여가시간	남성	99	2.121	1.8421	.900	
	여성	87	1.897	1.5176	(.369)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1-6] 여성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대전시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 - 연령별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혀 성평등 하지않다	대체로 성평등 하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성평등 하다	매우 성평등 하다	χ^2 (p)	평균 (표준 편차)	F (p)
전 체	785 (100.0)	30 (3.8)	170 (21.7)	439 (55.9)	120 (15.3)	26 (3.3)		2.93 (.806)	
20 대	141 (100.0)	3 (2.1)	31 (22.0)	81 (57.4)	22 (15.6)	4 [#] (2.8)	19.748 (.232)	2.95 (.759)	.685 (.603)
30 대	173 (100.0)	5 (2.9)	33 (19.1)	106 (61.3)	22 (12.7)	7 (4.0)		2.96 (.773)	
40 대	208 (100.0)	4 (1.9)	50 (24.0)	118 (56.7)	29 (13.9)	7 (3.4)		2.93 (.767)	
50 대	169 (100.0)	13 (7.7)	35 (20.7)	90 (53.3)	28 (16.6)	3 (1.8)		2.84 (.855)	
60 대	94 (100.0)	5 [#] (5.3)	21 (22.3)	44 (46.8)	19 (20.2)	5 [#] (5.3)		2.98 (.927)	

#. 해당 셀(12.0%)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임

[부표 1-7]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 (2순위) - 남녀비교

(단위: 명, %)

구분	합계	직장문화 개선제도	일자리 상담/알선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지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직업훈련/ 창업지원	부모/ 가족교육	성평등인 식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저소득/ 다양한 가족지원	폭력피해 자지원	χ^2 (p)
전 체	1574 (100.0)	180 (11.4)	176 (11.2)	163 (10.4)	163 (10.4)	156 (9.9)	152 (9.7)	148 (9.4)	136 (8.6)	123 (7.8)	117 (7.4)	60 (3.8)	13.543 (.195)
남 성	800 (100.0)	91 (11.4)	105 (13.1)	77 (9.6)	77 (9.6)	83 (10.4)	68 (8.5)	73 (9.1)	62 (7.8)	67 (8.4)	66 (8.3)	31 (3.9)	
여 성	774 (100.0)	89 (11.5)	71 (9.2)	86 (11.1)	86 (11.1)	73 (9.4)	84 (10.9)	75 (9.7)	74 (9.6)	56 (7.2)	51 (6.6)	29 (3.7)	

* 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분포 순으로 나열함

부록 2. 설문지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위한 대전시민 설문조사

조사원 CODE				
-------------	--	--	--	--

응답자 CODE				
-------------	--	--	--	--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출자·출연한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대전이 양성평등해지기 위한 정책 개발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본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IS로 읽는 대전여성가족통계」, 「대전지역 성평등정책 현안 및 수요 분석」 연구를 위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33조와 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며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대전세종연구원

- 연구책임 : 주혜진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042-530-3522)
- 문의 : 오윤희 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042-530-3550)
- 조사시행 : 주식회사 세종리서치 (042-484-5044)

응답자 정보 및 거주 여건

지 역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행 정 동	(_____)동	대전지역 거주기간	총 (_____)년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만 (_____)세
혼인상태	① 기혼 ② 사별·이혼·별거 ③ 혼인한 적 없음		
가구(거주)유형	① 혼자거주 ② 배우자와 동거 ③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④ 자녀와 동거 ⑤ 손자녀와 동거 ⑥ 부모와 동거 ⑦ 기타(직접기입) _____		
총 자녀수	(_____)명	첫째 자녀 연령	만 (_____)세
경제활동 상태	① 정규 상근 ② 비정규 상근 ③ 부정기 파트타임 / 일용직 ④ 자영업(임대업 포함) ⑤ 일하지 않음(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대 ③ 200만원대 ④ 300만원대 ⑤ 400만원대 ⑥ 500만원대 ⑦ 600만원 이상		

현 거주지 선택사유	① 직장(학교)과 가까워서 ② 주거비(집값) ③ 교통 ④ 안전(치안) ⑤ 교육·보육환경 ⑥ 여가·문화시설 ⑦ 공원·녹지 ⑧ 깨끗한 환경 ⑨ 의료시설 ⑩ 복지시설 ⑪ 주차여건 ⑫ 쇼핑·편의시설 ⑬ 지인들이 가까이 살아서 ⑭ 기타(직접기입) _____
현 거주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	① 주거비(집값) ② 교통 ③ 안전(치안) ④ 교육·보육환경 ⑤ 여가·문화시설 ⑥ 공원·녹지 ⑦ 환경오염 ⑧ 의료시설 ⑨ 복지시설 ⑩ 주차여건 ⑪ 쇼핑·편의시설 ⑫ 기타(직접기입) _____

주중·주말을 포함하여 생각할 때

1일 평균 (소득을 위한) 노동시간	(_____) 시간	1일 평균 가사시간	(_____) 시간
1일 평균 가족돌봄 시간 (자녀, 부모 등)	(_____) 시간	1일 평균 여가시간	(_____) 시간

본 질 문

1	현재 귀하께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은 어떤 것입니까?							
	▷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① 고용 불안정성·취업 문제 ② 저소득·부채 등 경제 문제 ③ 과도한 업무·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④ 경력단절 ⑤ 육아를 포함한 가족 돌봄 문제 ⑥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⑦ 자기개발 시간 부족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⑧ 여가 시간 부족 ⑨ 신체 건강 문제 ⑩ 심리적 불안정·우울 ⑪ 노후대비 ⑫ 가족(배우자, 자녀 등)과의 갈등·불화 ⑬ 사회적 관계(친구, 동료 등)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 ⑭ 데이트폭력, 성희롱/성폭력, 범죄 등 안전 문제 </td> </tr> </table>	① 고용 불안정성·취업 문제 ② 저소득·부채 등 경제 문제 ③ 과도한 업무·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④ 경력단절 ⑤ 육아를 포함한 가족 돌봄 문제 ⑥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⑦ 자기개발 시간 부족	⑧ 여가 시간 부족 ⑨ 신체 건강 문제 ⑩ 심리적 불안정·우울 ⑪ 노후대비 ⑫ 가족(배우자, 자녀 등)과의 갈등·불화 ⑬ 사회적 관계(친구, 동료 등)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 ⑭ 데이트폭력, 성희롱/성폭력, 범죄 등 안전 문제					
① 고용 불안정성·취업 문제 ② 저소득·부채 등 경제 문제 ③ 과도한 업무·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④ 경력단절 ⑤ 육아를 포함한 가족 돌봄 문제 ⑥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⑦ 자기개발 시간 부족	⑧ 여가 시간 부족 ⑨ 신체 건강 문제 ⑩ 심리적 불안정·우울 ⑪ 노후대비 ⑫ 가족(배우자, 자녀 등)과의 갈등·불화 ⑬ 사회적 관계(친구, 동료 등)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 ⑭ 데이트폭력, 성희롱/성폭력, 범죄 등 안전 문제							
	⑮ 기타(직접 기입)							
2	귀하는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부당한 대우) 받은 경험 이 있습니까? 항목에 따라 “있음” 혹은 “없음”에 V(체크)해 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차별의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항	목	없음	있음	차별의 정도				
				미미한 차별 ↔ 매우 강한 차별				
	가정생활에서의 차별(가사나 양육, 재산상속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진로지도, 상벌, 등)			①	②	③	④	⑤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채용, 임금, 승진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사회(문화)생활에서의 차별 (성희롱/성폭력, 외모비교, 여성/남성비하 등)			①	②	③	④	⑤

